



###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0년 8월  
석사학위 논문

# 한국 내 중국 조선족의 언어 태도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주형

한국 내 중국 조선족의  
언어 태도 연구

A Study on Language Attitude for Korean-Chinese  
in Korea

2010년 8월 25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 주 형

# 한국 내 중국 조선족의 언어 태도 연구

지도교수 강 희 숙

이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10년 4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 주 형

## 박주형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최재희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석주연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강희숙 (인)

2010년 5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 목 차

## ABSTRACT

제1장 서론 .....	1
1.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1
1.2. 선행 연구 .....	3
1.3. 이론적 배경 .....	6
1.3.1. 언어 태도의 개념 .....	6
1.3.2. 언어 태도의 조사 방법 .....	7
1.4. 연구 방법 및 내용 .....	8
제2장 조선족과 언어 상황 .....	10
2.1. 조선족의 이주와 정착 .....	10
2.2. 조선족의 언어 사용 환경 .....	12
2.3. 한국 내 조선족 현황 .....	15
제3장 조선족의 언어 태도 .....	26
3.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27
3.2. 조선족의 언어 태도 .....	32
3.2.1. 유학생의 경우 .....	32
3.2.2. 결혼이민자의 경우 .....	40
3.3. 조선족의 언어 태도와 언어 정책의 방향 .....	50
3.3.1. 유학생의 경우 .....	50
3.3.2. 결혼이민자의 경우 .....	56
제4장 결론 및 제언 .....	63
【참고문헌】 .....	67
【부록】 .....	74

# 표 목 차

<표 1> 체류 외국인 국적별 현황 .....	17
<표 2> 연도별 체류 외국인 현황 .....	17
<표 3> 연도별 조선족 현황 .....	19
<표 4> 국적별 유학생 현황 .....	21
<표 5> 연도별 조선족 유학생 현황 .....	22
<표 6> 국적별 결혼이민자 현황 .....	24
<표 7> 연도별 조선족 결혼이민자 현황 .....	25
<표 8> 조사대상자의 기본 현황 .....	28
<표 9> 조사대상자의 제1언어 .....	29
<표 10> 조사대상자 부모의 조선족 여부 .....	30
<표 11> 조사대상자 부모의 사용 언어 .....	31
<표 12> 유학생 조사대상자의 세부 전공 .....	32
<표 13> 한국어와 조선족 한국어의 비슷한 정도(유학생) .....	32
<표 14> 한국어와 조선족 한국어의 차이점 순위(유학생) .....	34
<표 15> 한국어와 조선족 한국어의 차이점 빈도(유학생) .....	35
<표 16> 한국어와 조선족 한국어의 느낌(유학생) .....	37
<표 17> 한국어와 조선족 한국어의 비슷한 정도(결혼이민자) .....	40
<표 18> 한국어와 조선족 한국어의 차이점 순위(결혼이민자) .....	42
<표 19> 한국어와 조선족 한국어의 차이점 빈도(결혼이민자) .....	43
<표 20> 한국어와 조선족 한국어의 느낌(결혼이민자) .....	45
<표 21> 한국어와 조선족 한국어의 느낌(전체 조사대상자) .....	48
<표 22> 의사소통 시 어려운 점 순위(유학생) .....	51

<표 23> 의사소통 시 어려운 점 빈도(유학생) .....	52
<표 24> 한국어 교육 시 공부하고 싶은 점(유학생) .....	53
<표 25> 외래어와 관련한 한국, 중국, 북한의 차이 .....	55
<표 26> 의사소통 시 어려운 점 순위(결혼이민자) .....	57
<표 27> 의사소통 시 어려운 점 빈도(결혼이민자) .....	58
<표 28> 한국어 교육 시 공부하고 싶은 점(결혼이민자) .....	59
<표 29> 한국어의 신어(新語) .....	61



# 그림 목 차

[그림 1] 국적별 체류 외국인 분포 .....	16
[그림 2] 체류 외국인 중 조선족 분포 .....	18
[그림 3] 연도별 조선족 증감 현황 .....	19
[그림 4] 연도별 유학생 증감 현황 .....	20
[그림 5] 국적별 유학생 분포 .....	21
[그림 6] 연도별 조선족 유학생 증감 현황 .....	22
[그림 7] 연도별 결혼이민자 증감 현황 .....	23
[그림 8] 국적별 결혼이민자 분포 .....	24
[그림 9] 연도별 조선족 결혼이민자 증감 현황 .....	25
[그림 10] 한국어와 조선족 한국어의 비슷한 정도(유학생) .....	33
[그림 11] 한국어와 조선족 한국어의 느낌(유학생-남자) .....	38
[그림 12] 한국어와 조선족 한국어의 느낌(유학생-여자) .....	38
[그림 13] 한국어와 조선족 한국어의 느낌(유학생-전체) .....	39
[그림 14] 한국어와 조선족 한국어의 비슷한 정도(결혼이민자) .....	41
[그림 15] 한국어와 조선족 한국어의 느낌(결혼이민자-광주) .....	46
[그림 16] 한국어와 조선족 한국어의 느낌(결혼이민자-전남) .....	46
[그림 17] 한국어와 조선족 한국어의 느낌(결혼이민자-전체) .....	47
[그림 18] 한국어와 조선족 한국어의 느낌(전체 조사대상자) .....	49
[그림 19] 한국어 교육 시 공부하고 싶은 점(유학생) .....	54
[그림 20] 한국어 교육 시 공부하고 싶은 점(결혼이민자) .....	60
[그림 21] 한국어 교육 시 공부하고 싶은 점(전체 조사대상자) .....	62
[그림 22] 한국어와 조선족 한국어의 느낌 .....	64

## ABSTRACT

### **A Study on Language Attitude for Korean-Chinese in Korea**

Park, Joohyung

Advisor : Prof. Kang, Huisuk, Ph.D.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 Literature,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is study has the purpose of examining the language attitude of Korean-Chinese who have migrated to Korea, and analyzes their attitude toward Korean language and Korean-Chinese Korean languag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understand what Korean-Chinese feel and think about Korean language and Korean-Chinese Korean language in Korea and thereby ultimately figure out how Korean language education and policies have to be performed.

This study examined the language attitude of Korean-Chinese by the method of questionnaire survey on Korean-Chinese male and female students attending colleges and universities located in Gwangju Metropolitan City and on Korean-Chinese marriage immigrants residing in Gwangju Metropolitan City and Jeollanam-*Do*.

First, surveyees think that although Korean language and Korean-Chinese Korean language are similar, they differ in 'pronunciation, intonation, stress', 'use of loanwords and foreign words', etc.

Second, surveyees have similar feelings about Korean language and Korean-Chinese Korean language although male surveyees show 'covert prestige' about Korean-Chinese Korean language, their mother tongue.

Third, with respect to their language difficulties while living in Korea, 'pronunciation, intonation, stress' and 'use of loanwords and foreign words', which are different between Korean language and Korean-Chinese Korean language, show a high response rate.

Fourth, most surveyees respond that Korean language training is necessary. Also, regarding the fields of training they want, 'pronunciation, intonation, stress' and 'use of loanwords and foreign words', etc. showed a high response rate, same as in difference between the two languages and their language difficulties experienced in Korea, mentioned above.

# 제1장 서론

## 1.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는 한국에 이주해 살고 있는 중국 조선족<sup>1)</sup>들이 자신들의 모어(母語, mother tongue)인 조선족 한국어와 한국의 공용어인 한국어<sup>2)</sup>에 대하여 보이는 언어 태도(言語 態度, language attitude)와 함께,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겪는 언어적 차원의 문제는 무엇인가를 토대로 언어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09)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08년 12월 31일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은 1,158,866명이다. 이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중국인들은 556,517명으로 전체 체류 외국인 중 48.0%에 해당한다. 이들의 체류 방법으로는 결혼, 유학, 취업, 방문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중국인들 가운데서도 조선족의 수는 376,563명으로 전체 외국인 중에서 32.5%를 차지하며, 중국인 중에서 67.7%에 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비중은 한국 내 체류 외국인 중에서 3명 중 1명이 조선족인 셈으로 이들의 비중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 1) ‘조선족’이라는 명칭에 대해 김명희(2003:186)는 “언어적으로 중립적 조선족이란 중국의 한인계 소수민족을 일컫는 ‘공식적 이름’이 아니라 한국사회 내에서 ‘구별 짓기’의 의미를 지니는 명칭으로 변화되었고, 국내 중국 조선족에게 그것은 ‘다양성 인정과 존중’이란 긍정적 측면에서의 ‘구분 짓기’와는 거리가 먼 ‘차별과 멸시’의 구별화를 의미하게 되었다.”라고 하였다. 여수경(2005:261)은 “중국어식 명칭의 일반적이고 보편화된 ‘중국의 소수민족’ 또는 ‘한국과 역사적 배경을 같이 하지만 중국에 거주하는 한민족’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출간된 대부분의 통계자료들은 조선족 대신에 ‘한국계 중국인’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다. 이외에도 이들에 대한 명칭으로는 ‘중국 동포/교포, 재중동포/교포’ 등이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차별과 멸시로 구별하지 않는 의미로서 일반적으로 언중(言衆)에게 널리 통용되고, 사전에도 등재되어 있는 ‘조선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 2) ‘조선족 한국어’와 ‘한국어’는 같은 언어이다. 중국과 조선족에게 ‘조선어’라고 불리는 조선족 한국어는 한국어의 한 변종(variants)이다. 본고에서는 중국 조선족이 사용하는 한국어를 ‘조선족 한국어’라고 하고, 한국의 공용어를 ‘한국어’라고 규정하기로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4조에는 “각 민족은 자기의 언어와 문자를 사용하고 발전시킬 자유가 있고, 자기의 풍속 및 습관을 유지하고 개혁할 자유가 있다.”<sup>3)</sup>고 명시되어 있다. 이처럼 중국 정부는 자국 내 언어정책의 일환으로 소수민족의 언어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써 조선족 한국어가 사멸되거나 그러한 위기에 처해 있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김동소·최희수·이은규(1994)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해방 후 40여 년 간의 역사 과정에서 중국 조선족 한국어가 보존되고 발전해 올 수 있었던 주요한 원인의 하나가 중국 정부의 정확한 민족 정책의 실시이다. 소수민족의 언어·문자가 법률의 보호를 받고 민족 언어 문자 사용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았다면 중국 조선족 한국어가 오늘과 같은 발전을 가져 오기 어려웠음은 의심할 바 없을 것이다(김동소 외, 1994:53).

조선족은 중국의 56개 민족 중 13번째로 많은 인구를 차지하고 동북 3성(東北三省)<sup>4)</sup>에 200여 만 명이 살고 있다. 특히 중국 길림성의 연변 조선족 자치주는 중국 최대의 조선족 집거 지역으로 이중 언어 교육을 실행하고 있고 일상생활에서도 중국어[漢語]와 조선족 한국어를 이중 언어로 사용하고 있다.<sup>5)</sup>

주로 한족(漢族)으로 대표되는 다른 중국인들과는 달리 조선족들은 자신들이 사용하던 조선족 한국어와 비슷하지만 똑같지는 않은 한국어를 사용한다. 마금선(2009:58)에서는 중국 연변의 조선족 한국어는 이주 당시의 언어를 보존함과 동시에 북한어의 영향을 많이 받아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국어와는 음운, 억양, 어휘, 문법 등에서 다소 이질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본고는 이 점에 착안하여 조선족 스스로가 생각하는 한국어와 조선족 한국어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조선족의 언어에 대한 연구는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중국의 소수민족 언어 정책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그들의 자치구 내에서의 두 언어인 중국어와 조선족 한국어에 대한 태도, 교육, 언어

3)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4조에서 인용한 원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各民族都有使用和发展自己的语言文字的自由，都有保持或者改革自己的风俗习惯的自由。”

4) 동북 3성(東北三省)은 중국의 6대 ‘중국지리대구(中國地理大區)’의 하나로서 동북부 지역을 말한다. 과거에는 만주(滿洲)라고 불렀던 지역으로, 행정구역상으로는 랴오닝 성[요녕성, 遼寧省], 지린 성[길림성, 吉林省], 헤이룽장 성[흑룡강성, 黑龍江省]의 3개 성(省)이 포함된다. 고조선, 고구려, 발해의 유적이 많이 남아있어 한민족(韓民族)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지역이다.

5) 자세한 사항은 럽광호(1989), 마금선(2009), 김영수(2006), 박금혜(2004) 등을 참고할 것.

선택, 모국어 사용, 민족정체성 등과 관련된 것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한국 내에서의 중국 조선족의 언어 태도에 관한 연구, 특히 중국어와 조선족 한국어가 아닌 한국어와 조선족 한국어에 대한 언어 태도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본고의 필요성이 있다. 본고에서는 한국 내 언어 사용자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조선족들이 가지는 언어 태도와 함께 이들이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겪는 언어적 차원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조선족을 이해함과 동시에 해외 동포에 대한 우리의 언어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1.2. 선행 연구

1990년대 이전 한국과 중국은 외교가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선족에 대한 연구에 많은 제약이 있었다(김옥, 2008:6). Zhang(2010)에 따르면 1990년대 이전은 주로 민족역사 및 항일투쟁에 관한 연구가, 1990년대 이후는 조선족의 민족 교육, 문화, 경제, 정치, 민족의식, 정체성, 한국관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연구가 행하여 졌다.

조선족의 언어에 대한 연구 역시 1990년대 전후, 즉 한·중 수교(韓中修交)를 기점으로 나눌 수 있다. 한·중 수교 전에는 주로 중국 내 이중 언어 현상, 한어(漢語)의 영향에 의한 조선족 한국어의 변화, 조선족 한국어의 교육 및 발전 등이 연구되었다. 이에 해당하는 연구로는 최윤갑 외 13인(1992), 최윤갑(1994, 1995) 등이 있는데, 중국의 어문 정책, 해방 후 조선족 한국어, 조선족 한국어의 발전 및 통일 등을 다루고 있다. 특히 최윤갑(1994)에서는 중국, 조선<sup>6)</sup>, 한국에서의 조선족 한국어의 차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한·중 수교 후에도 조선족의 언어에 대한 연구가 계속 지속됨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언어 태도와 모국어의 사용 및 실태 등이 함께 다루어지고 있다. 시기에 따른 차이점이 있다면 한·중 수교 전보다는 연구의 양이 더욱 많아졌으며, 원활한 교류

---

6) 최윤갑(1994)에서의 ‘조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즉 북한을 가리킨다.

덕택으로 보다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연구 주제에 대해서는 공통점이 많은 편이다. 이는 중국에서 살고 있는 조선족의 언어에 대한 것으로 주로 이중 언어 현상<sup>7)</sup>, 언어 태도, 언어 비교 등이 있다.

이중 언어 현상(二重言語現象)에 대한 것으로는 럽광호(1989), 박태형(1995), 묘춘매(1997), 연호탁(1999), 박윤조(2000), 박경래(2002a, b), 박금해(2004), 이귀옥·전효정·박혜원·강완숙·장미자(2004), 이장송·신경식(2004), 박영순(2005), 신승용(2006), 김연옥(2009), 마금선(2009) 등이 있다.<sup>8)</sup> 이 연구들은 조선족들의 중국어와 조선족 한국어 간 언어 사용 및 태도, 조선족 한국어 교육 등을 이중 언어 현상과 함께 다루고 있다. 박경래(2002b)에서는 중국어와 조선족 한국어의 언어 태도에 대하여 조선족의 조선족 한국어 구사 정도에 대한 기대치가 매우 높게 드러남을 보여주는데, 조선족 조사대상자의 74.6%가 ‘조선족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조선족 한국어를 잘해야 한다’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를 조선족으로서의 정체성과 같은 추상적인 이유가 더 크게 작용하는 것(박경래, 2002b:83)으로 해석하면서 모어인 조선족 한국어가 민족 정체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sup>9)</sup>

조선족의 언어 비교에 대한 것으로는 크게 조선족 한국어와 중국어, 한국어와 조선족 한국어에 대한 연구가 있다. 조선족 한국어와 중국어의 비교 연구에 대한 것은 김동소 외 2인(1994), 임형재(2006) 등이 있다. 김동소 외 2인(1994)에서는 중국어 요소의 차용, 조선족 한국어와 중국어의 병용, 중국어에 의한 교란, 혼합어의 발생, 단어의 동화 등 중국어의 영향으로 생겨난 조선족 한국어에 대한 현상들을 정

7) “한국에서처럼 한 나라의 국민이 모두 동일한 언어를 모어(母語)로 하는 현상을 단일 언어 현상(單一言語現象, monolingualism)이라 하고… 구소련이나 스위스처럼 한 나라 국민이면서도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각기 다른 언어를 배우면서 그것을 모어로 삼는 현상은 다언어 현상(多言語現象, multilingualism)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며… 만일 다언어 현상 중 그것이 여러 언어에 걸치는 것이 아니고 단 두 언어에 한정될 때는 이중 언어 현상(二重言語現象, bilingualism)이라 하여 구별하기도 한다.”(이익섭, 1994:235~236). 본고에서는 조선족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종족과 언어를 배제하고, 조선족의 조선족 한국어와 중국어의 사용이라는 이중 언어 현상으로 보았다.

이러한 다언어 현상의 발생 요인을 Fasold(1984:9~12)에서는 이민, 식민지화, 연방화, 언어 접촉 등 4가지로 나누고 있다. 이 가운데 어느 한 가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몇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서 다언어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Fasold(1984:9~12), 이익섭(1994:243~247)을 참고할 것.

8) 이 연구들은 대부분 조선족 한국어와 중국어에 대한 이중 언어 상황에 노출된 조선족들에 대한 언어 선택 및 전환, 언어 태도, 모어 교육 등을 함께 다루고 있다. 이 연구들은 하나하나 세세하게 분류하기가 어려운 통합적 연구 성과들이다. 따라서 가장 큰 맥을 이루고 있는 ‘이중 언어 현상’이라는 주제로 함께 분류하였다.

9) 지금까지 조선족의 언어 태도는 대부분 중국 사회 내에서 조선족 한국어와 중국어 사이에 대해 연구되었다. 필자는 이 점에 주목하여 한국 사회 내에 있는 이들의 한국어와 조선족 한국어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고자 함이다.

리하고, 이를 음운, 어휘, 문법 등으로 나누어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임형재(2006)에서는 인용, 청자 구분, 감탄, 반복, 전달 내용, 발화의 공·사 부분, 불확실성 등의 대화에서 나타난 표현(expression)에서의 조선족 한국어와 중국어의 코드 전환(code-switching)을 다루고 있다.<sup>10)</sup>

한국어와 조선족 한국어에 대한 비교 연구는 강희숙(2003), 이주행(2003, 2005)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강희숙(2003)은 중국 내에서 이루어진 백일장에 참가한 조선족 학생들의 작문 자료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다. 음운과 형태, 문법과 의미의 측면에 걸친 언어학적 사실들을 ‘방언 요소의 반영’, 국어의 역사적 변천과 관련하여 나타날 수 있는 ‘통시적 언어 요소의 반영’, 여러 가지 언어 내적 혹은 언어 접촉 등과 같은 언어 외적 요인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공시적 언어 변화의 반영’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논하고 있다. 이주행(2003)은 한국과 중국 조선족 사회에서 사용되고 있는 표기와 발음(문자, 맞춤법, 띄어쓰기 규정, 표준 발음법), 어휘, 문장 및 문법 등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sup>11)</sup> 또한 이주행(2005)에서는 예컨대, ‘주춧돌’을 [주치똥/지치똥]로, ‘다리미’를 [대리미]로 발음하는 등 한국인과 중국 조선족의 음운 실현 양상에 대해 비교하였다. 그러면서 “두 언어의 차이는 각 언어의 사용자들이 의사소통을 하는 데 크게 지장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며 원만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중국 조선족 사회에서 한민족어(韓民族語)를 순화하는 데 힘써야 한다.”<sup>12)</sup>고 역설하고 있다. 하지만 조선족의 언어 태도와 이들의 한국 생활에서의 언어적 차원의 문제 등은 연구되지 못하였다.

10) 임형재(2006)에서는 중국어와 조선족 한국어의 코드 전환(code-switching)에 대하여 조선족 한국어를 사용하다가도 인용구는 중국어로 발음을 하며, 청자의 지위에 따라 중국어를 사용하다가도 조선족 한국어로 바꾸어 준대를 다르게 하는 경우를 보여 주고 있다.

11) 이주행(2003)에서는 한국어와 조선족 한국어가 많은 부분에서 상이한 점이 있다고 하였다. 예컨대, 주격조사로 ‘이/가’ 외에 ‘이가, 래’를 사용하거나, ‘을/를’ 대신에 ‘으/르’를 사용하는 모습 등 이외에도 많은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주격조사 ‘이/가’는 한국의 경북 영풍, 영덕, 울진과 전남의 장성, 담양, 함평 등지에서 쓰인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 외의 지역에서는 쓰이지 않는다고 하면서 다음의 예를 들었다. “선생님이가 그렇게 말씀하셨다.”, “코끼리는 코이가 크다.” (이주행, 2003:301~302)

목적격 조사 ‘을/를’이 ‘으/르’와 같은 형태로 쓰이고 있는 곳은 중국의 길림성 장백현, 연변, 목단강 지구를 비롯한 흑룡강 동부 지역이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대등계층으 많이 쓰니까 아마 그렇겠지.”, “조선족 한국어르 제외하고 다 쓸 수 있어요.” (이주행, 2003:202)

12) 이주행(2003:305)에서는 원만한 의사소통을 위해 한민족어(韓民族語)를 사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에 대한 방안으로는 한국인과 중국 조선족의 동일한 한자(漢字) 사용, 동일한 맞춤법에 의거한 단어 표기, 동일한 띄어쓰기 규정에 따른 띄어쓰기, 동일한 표준 발음법에 따른 발음, 동일한 표준어 사용, 동일한 규범 문법에 따른 문장 구성 등 통일된 어문 규범 제정과 규범 문법 기술의 필요성을 들고 있다. 자세한 논의는 이주행(2003:279~305)를 참고할 것.



## 1.3. 이론적 배경

### 1.3.1. 언어 태도의 개념

지금까지 ‘언어 태도’와 비슷한 의미로 ‘언어 의식’이 사용되어 왔다.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언어 태도와 언어 의식이 따로 혹은 함께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sup>13)</sup>

먼저 언어 태도(言語 態度, language attitude)는 주로 ‘언어 사용자인 화자가 어떤 언어에 대해 가지는 태도’를 의미한다. 언어 태도에 대한 정의는 이익섭(1994), 박경래(2002b) 등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익섭(1994)에서는 언어 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는 언어에 대해 어떤 태도(attitude)를 취한다. 언어가 주는 자극에 의해 거기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 심리적 상태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어떤 태도가 바로 언어에 관한 것일 때 그 태도를 언어 태도(言語 態度, language attitude)라 한다. ... 언어 태도는 언어의 사회적 역할을 밝혀 주는 도구,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한 집단의 성원임을 드러내 주는 징표로서 언어가 어떤 구실을 하는가를 이해하게 해주는 도구이기도 한 것이다(이익섭, 1994:276~288).

언어 태도는 좁게는 언어 자체에 대한 태도만을 가리킨다. 가령 어떤 사투리를 무뚝뚝하고 거칠다고 느낀다면 이러한 언어 태도를 그 사투리 자체에만 묶어 주는 범위에서 이 용어를 쓰는 것이다.<sup>14)</sup> 그러나 흔히 언어를 통해 그 사용자까지 운위할 수 있다. 어떤 사투리가 무뚝뚝하고 거칠다고 느낀다면 그 말만 따로 떼어서 생각하기보다 그 사투리를 사용하는 지역의 사람들의 성격도 무뚝뚝하고 거칠다고 간주하기도 한다. 따라서 언어 태도는 이와 같은, 어떤 언어 사용자에 대한 태도까지 포괄하는 넓은 의미로 쓰이는 것이 더 일반적인 경향이다(이익섭, 1994:276).

---

13)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언어 태도와 언어 의식, 이 두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었다. 박경래(2002b), 김연옥(2009) 등에서는 언어 태도가, 조준학 외 3인(1981), 민현식(2002), 양명희(2007) 등에서는 언어 의식이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양철준(2007)에서는 언어 태도와 언어 의식이 함께 사용되고 있다.

14) 언어 태도는 그 대상이 되는 언어의 태도가 꼭 다른 언어일 때만을 가리키지는 않는다. 이에 대하여 박경래(2002b:62)에서는 언어 태도에 대하여 “언어 태도는 특정 언어나 특정 화자의 말에 대한 청자의 느낌이나 평가 등을 나타내는 화자의 반응이다.”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전라 방언, 경상 방언, 충청 방언 등 다른 방언에 대해 가지는 태도도 언어 태도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언어 태도’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박경래, 2002b:61). 이와 비슷한 의미로 언어 의식(言語 意識)이 사용되어 왔다. 언어 의식에 대한 개념은 민현식(2002)에서 살펴볼 수 있다.

‘언어 의식’이란 용어는 ‘언어 태도’라는 용어와 어느 정도 관련된다. 사회언어학에서는 ‘언어 태도’라는 용어를 쓰면서 ‘언어 의식’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태도의 바탕에 있는 ‘언어 의식’이란 면을 부각시키고자 ‘언어 의식’이란 용어를 선택하였다. 또한 우리가 쓰는 ‘언어 행동’이란 범주에 ‘언어 태도’의 결과들이 관여하기에 ‘언어 태도’가 ‘언어 행동’ 범주에 관련된다고 보고 ‘언어 태도’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다(민현식, 2002:79).

언어 태도와 언어 의식, 두 용어가 가지는 의미에 차이가 있다. 조준학(1981:169)에서 “언어가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의 의식을 비취 주는 거울이라 본다.”라고 한 것처럼 언어 의식은 언어 태도에 비해 보다 심리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는 듯하다. 이에 반하여 언어 태도는 이러한 심리가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에 더 의미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익섭(1994:276)에서는 “언어 의식, 또는 방언 의식 등의 용어는 아마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것인 듯하다. 앞으로 언어 태도란 용어가 좀더 널리 쓰여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sup>15)</sup>

### 1.3.2. 언어 태도의 조사 방법

언어 태도의 조사 방법<sup>16)</sup>으로는 크게 직접 방법과 간접 방법이 있다. 직접 방법(direct method)은 언어 태도를 조사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피조사자들에게 우회적인 방법을 동원함이 없이 직접 어떤 언어, 또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에 대

15) Crystal(1992)에는 언어 태도를 “자신의 언어 또는 다른 사람들의 언어에 대해 갖는 감정”이라고 정의되어 있고, Fasold(1984:148)은 언어 태도를 언어 그 자체에 대한 태도, 특정 언어(또는 방언) 사용자에게 대한 태도, 언어에 관한 모든 행위(언어 관리, 언어 계획)에 대한 태도 등으로 논하였다(양명희, 2007:108). 언어 태도와 언어 의식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적합한 용어인지는 보다 세밀한 논의가 필요하겠다. 본고에서는 사회언어학의 관점에서 조선족의 언어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는 것이므로 언어 태도를 쓰고자 한다.

16) 언어 태도는 길으로 드러나지 않는 속마음을 캡으로써 밝혀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그 조사 방법의 비중의 더욱 높은 분야라고 할 수 있고, 그러한 특성에서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독창적인 조사 방법이 많이 개발되어 있는 편이다(이익섭, 1994:277). 언어 태도의 조사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익섭(1994:277~281)을 참고할 것.

한 느낌을 묻는 방식(이익섭, 1994:278)이다. 가령 ‘중국어의 성조(聲調)에 대해 어떠한 느낌을 갖고 있는가?’, ‘조선족 한국어는 남한과 북한 중 어느 쪽의 말투와 비슷한가?’ 등과 같은 직접적인 질문을 통하여 응답을 얻는 방법이다.

이러한 직접 방법으로는 직접 대면하는 질문하는 인터뷰와 글로 질문하여 응답을 얻는 설문지 조사가 있다. 인터뷰(interview)는 직접 대면하여 말로써 응답을 하기 때문에 간편하게 또는 잘못된 응답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일일이 사람을 대면할 시간이나 여건을 갖추기 어려운 단점을 가지고 있다. 조사기간이 길다고 할 때, 설문지를 통한 조사는 인터뷰에 비해 훨씬 많은 조사대상자에게서 응답을 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sup>17)</sup>

간접 방법(indirect method)은 직접 방법과는 다르게 질문을 우회적으로 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피조사자가 언어 태도에 대해 조사를 받는다는 것을 눈치 채지 못하도록 관심을 다른 쪽으로 돌리는 질문을 통하여 언어 태도와 관계없는 듯한 응답을 유도하면서 실제로는 언어 태도를 측정하는 방식이다(이익섭, 1994:279). 이 방식은 애국심, 자존심 등의 속마음과 다른 응답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 1.4. 연구 방법 및 내용

연구를 위한 조사 지점은 광주와 전남 지역이며, 조사대상자는 이 지역에 체류 중인 조선족이어야 한다는 조건하에 유학생 및 결혼이민자를 각각 70명과 42명, 총 112명을 선정하였다.<sup>18)</sup> 유학생과 결혼이민자로 제보자를 분류한 것은 체류 자격에 따라 각자 노출된 환경에서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며, 각각의 체류 자격에 따라 보여 주는 언어 사용의 유형을 비교 및 분석하기 위함이다.

---

17) 설문지의 질문 형식에 관해서는 이익섭(1994:278~279) 및 박명수(2007:43~67)을, 설문지 작성에 관해서는 박명수(2007:27~89)를 참고할 것.

18) Neuman(1997:222)에 따르면 모집단 1,000명 아래에서는 300명을, 150,000명 이상에서는 1,500명을 조사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Milroy & Gordon(2003:29)에서는 분류기준(4개의 계층, 성별, 4등급의 나이 등)을 서로 곱하여 기준을 나누고, 그 기준에 4명씩의 제보자를 두어야 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광주·전남의 조선족 유학생과 결혼이민자는 각각 429명과 1162명이다. 본고에서는 어떤 특정한 분류기준으로 조사대상자의 수를 한정하는 데에 어려움을 느끼고, 조사대상자의 수를 한정하여 조사하였다.

자료 조사는 직접 조사로 설문지를 통해 이루어졌다. 설문지는 한국어와 조선족 한국어에 대한 언어 태도를 조사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된 두 언어에 대한 언어 태도는 본 연구가 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조선족의 한국 생활에서의 언어적 차원의 문제점을 보다 직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었다.

본고의 2장에서는 조선족과 그들의 언어 사용에 대한 것을 다루겠다. 조선족이 언제 중국으로 이주하였고 어떻게 정착을 하게 된 것인지 살펴보고,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이들의 모어 사용 및 보존에 대해 다루겠다. 그리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한국 내 조선족의 현황에 대하여 그림과 표를 이용해 정리하겠다.

3장에서는 설문지를 통해 조사된 자료를 정리함으로써 조선족의 언어 태도를 살펴보고, 조사대상자들의 한국어와 조선족 한국어에 대한 언어 태도를 유학생과 결혼이민자로 구분하여 비교하겠다. 또한 이것을 통하여 이들의 한국 생활에서의 언어적 차원에서 겪는 어려움, 즉 한국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어려운 점, 학습하기를 원하는 한국어 항목 등을 파악하고자 한다.

마지막인 4장은 결론이다. 3장에서 드러난 연구 결과를 정리하고, 조선족 또는 해외 동포에 대한 한국어 교육 및 언어 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방향을 모색해 볼 것이다. 또한 본 연구가 보완해야 할 점 및 제언으로 마무리할 것이다.

## 제2장 조선족과 언어 상황

### 2.1. 조선족의 이주와 정착

중국에서 ‘조선족’이라는 명칭은 1956년부터 불리기 시작하였다(김영수, 2006:17).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통계 자료에서는 조선족을 ‘한국계 중국인’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한국의 언론들은 이들을 ‘중국 동포’ 또는 ‘중국 교포’ 등으로 부르고 있으며, 주로 ‘조선족’이라는 명칭을 널리 사용하고 있다.<sup>19)</sup>

600만의 해외 동포 중, 거의 200만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조선족은 해외 한인 중 수적으로 가장 우세한 집단이며, 또한 이주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민족의 문화와 전통을 가장 완벽하게 보존하고 있는 민족이다(박근혜, 2000:97). 이들은 중국의 56개 민족 중의 하나로 인구수를 놓고 봤을 때 13번째로 그 수가 많으며, 주로 중국의 동북 3성, 과거에 만주라 일컬어지는 동북지역에 살고 있다. 하지만 조선족이 처음부터 중국에서 13번째로 많은 인구수를 기록하면서 동북 3성을 중심으로 살았던 것은 아니다.

중국 조선족은 이주민족이다. 이들의 이주 역사 및 배경에 대한 것으로는 박근혜(2000), 이현정(2001), 여수경(2005), 김영수(2006), Zhang(2010) 등이 있다. 박근혜(2000)에서는 명말청초(明末清初)로부터 조선족들이 정착하기 시작하였으며, 19세기 중엽 한반도의 자연재해로 인해 본격적인 이주가 시작되었다고 하였다. 이현정(2001:68)에서는 1881년 청나라의 봉금령(封禁令)<sup>20)</sup> 철폐로부터 약 130여 년 전부터

---

19) 앞의 각주 1)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본고에서는 ‘조선족’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자 한다. 조선족에 대한 많은 연구에서 조선족의 영문 명칭을 ‘Chinese Korean’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중국계 한국인’을 뜻한다. 따라서 ‘Korean Chinese’로 표기함이 정확한 뜻을 가진 명칭이다.

20) 중국의 옛 청(淸)나라는 자기 종족의 발원지를 중국의 동북지역으로 생각하여 신성화하였다. 따라서 청나라는 1750년부터 여러 차례 ‘봉금령(封禁令)’을 통해 당시 만주지역인 동북지역을 출입하지 못하게 하

조선족의 중국 이주가 시작되었으나 현재와 같은 조선족 마을 정착은 1930년대 일제 이주 정책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였다.<sup>21)</sup> 여수경(2005:250)에서는 중국 내 조선족의 이주 및 정착의 역사를 이주, 정착, 대량이주의 3단계로 구분하고, 이를 이주가 시작된 1851년 전후, 1875~1901년 봉금령의 해체에 따른 본격적인 이주에 인한 정착 시기, 1909~1945년 일제 강점시기에 따른 조선인들의 대량이주로 나누었다.<sup>22)</sup> 김영수(2006:17~18)에서는 한일합방 전후에 본격적인 중국으로의 이주가 행해진 것으로 보았으며, Zhang(2010:8~9)에서는 봉금령(封禁令)의 폐지 전과 후, 한일합방 이후, 9·18사변<sup>23)</sup> 이후 등 4단계로 조선족이 이주한 시기를 나누었다.<sup>24)</sup> 이와 같이 진행되었던 조선족의 이주는 1945년 광복을 맞이할 때까지 중국에 213만 명이 거주하였다(김영수, 2006:18).

이후 조선족들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에 의해 중국 사회에 정착함과 동시에 ‘중국 조선족’으로 그 정체성이 형성되었다.<sup>25)</sup> 중국 공산당은 1953년 제1차 ‘전국인민대표회의’에 참석할 각 민족 대표를 선거하기 위하여 민족 식별사업<sup>26)</sup>을 벌였다(이현정, 2001:71). 이에 의하여 55개 민족<sup>27)</sup>이 확정되었고, 그 가운데에 조선족이 있었다. 이때 조선족의 정체성에 대하여 여수경(2005)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였다. 그러나 1881년 러시아의 침략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조선인들의 토지소유권을 인정해주면서 조선족의 유입이 늘기 시작하였다.

21) 1936년 한반도 지역에 흉년이 들자 조선인 중 만주로의 이주자가 급증하는 상황 속에서 조선총독부와 만주국은 조선인의 이주를 보다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만조선인지도요강(在滿朝鮮人指導要綱)’에 합의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조선총독부는 ‘선만척식회사(鮮滿拓植會社)’를, 만주국은 ‘만선척식회사(滿鮮拓植會社)’를 설립했다(이현정, 2001:68).

22)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수경(2005:250~251)을 참고할 것.

23) ‘9·18사변’은 다른 말로 ‘만주 사변’이라고 한다. 이것은 한반도를 침략한 일본이 1931년 중국 동북지방을 침략할 목적으로 일으킨 전쟁으로 그 이듬해인 1932년 3월 ‘만주국’이라는 일본 꼭두각시 정부를 세우게 되었다.

24) 이들 연구들의 이주시기에 따른 분류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일제 강점시대에 많은 수의 조선족이 중국으로 이주했다는 것에는 대체적으로 일치하였다.

25) 황유복(1983)은 현재 중국 내 ‘조선족’이라는 정체성은 이주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형성된 것이 아니라 중국의 역사적 상황과 깊은 연관성 속에 형성된 것으로 두 단계로 구분된다고 하였다. 1950년에서 1945년 광복을 전후하여 조선족은 ‘조선인(朝鮮人)민족정체성’을 가졌다면, 광복 후 1950년대 중화인민공화국의 탄생을 통해 형성된 정체성은 ‘중국조선민족정체성’으로 탈조선족 성격, 즉 ‘조선인’에서 벗어나 ‘조선족’으로서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고 하였다(여수경, 2005:251 재인용).

26) 중국 공산당의 ‘민족 식별사업’에 대한 것은 이현정(2001:71~72), 김병호(1993:15~20)을 참고할 것.

27) 현재 중국은 56개 민족이지만, ‘제1차 전국인민대표회의’에는 55개 민족만 인정하였다. 이현정(2001:71)에 따르면 민족 단위로 제출된 것이 무려 400여 종이나 되었으며 운남성(雲南省)만 하더라도 240여 종의 민족이 넘었다.

오늘날 중국 사회의 정착과 ‘중국 조선민족’으로서 정체성은 1945년 중화인민공화국 정권 수립 과정에서 형성된다. 일제의 패망과 함께 중국인과 협동하여 조선족은 인민정권 창설활동에 앞장섰고, 이후 중국 국적을 부여받아 ‘조선족’으로서 중국 사회에 정착하게 된다. 중국의 소수민족 우대정책은 조선족들만의 자치구를 형성하고, 이 속에서 조선족들은 언어뿐만 아니라 공동체 생활 대부분에 이르기까지 조선족들 고유의 문화와 사회를 유지시킬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여수경, 2005:251).

조선족 한국어의 통용이 권장되었는가 하면 조선족들을 위한 민족 학교가 증설되었고, 조선족 한국어로 된 잡지 발간이 이루어질 만큼(Lee, 1986:69~73) 1950년대 초는 중국 공산당이 비교적 소수민족에 대해 호의적인 시기여서 조선족의 자치와 권익을 적극 존중해 주었다(이현정, 2001:72~73). 이와 같은 상황 때문인지 중국의 개방 개혁 후에도 정치, 문화, 경제, 교육 등 여러 면에서 의연히 중대한 역할을 하였다. 김영수(2006:19)에서는 연변 조선족 자치주를 놓고 보더라도 개혁 초기에 주변국과의 경제 교류와 문화 협력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자체의 물질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문화생활 수준을 크게 높여 56개 민족 중 종합 문화 소질 1위로 평가되었다고 하였다.

## 2.2. 조선족의 언어 사용 현황

주지하는 바와 같이, 중국은 다민족으로 많은 언어 및 문자를 가진 나라이다. 56개 민족에 총 80여 가지 이상의 언어, 30여 가지의 문자가 있다. 이 가운데 중국의 공용어는 한어(漢語)이다. 나머지 언어를 제외하고라도 조선족들은 민족어인 조선족 한국어와 공용어인 한어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

한민족(韓民族)이 중국 땅에 이민한 그날부터 이중 언어 사용은 시작되었다고 응당 보아야 할 것이다(이득춘, 1994:63). 이러한 이중 언어 현상의 유형에 관해 Fasold(1984:9~12)는 ‘Migration(이민), Imperialism(제국주의), Federation(연방 정부), Border areas(국경 지역)’ 등 4가지로 분류하였다. 이 가운데 중국 조선족의 경

우는 ‘Migration(이민)’으로 인한 이중 언어 현상이 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sup>28)</sup>

조선족의 이중 언어 현상은 단지 이민에 의해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현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동족(同族)이라는 민족의식도 민족어인 조선족 한국어를 지키는 데에 한 몫을 했겠지만, 중국의 헌법<sup>29)</sup>, 소수민족에 대한 정책의 하나인 조선족 한국어문 정책 등이 없었다면 현재와 같은 이중 언어 현상은 짐작하기 어렵다. 이러한 법적인 제재에 대한 것은 이득춘(199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국에서의 한중 이중 언어 생활은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과 그에 따른 조선족 한국어문 정책에 의해 한국어가 법적인 보증을 받음으로써 실현되고 있다. 그 기본적인 핵심 문제는 민족 평등과 언어 평등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 둘째, 「중화인민공화국 구역 자치법」 제21조에는 “민족 자치 지방의 자치기관은 직무를 집행할 때 … 당지에서 혼용되는 한 가지 또는 여러 가지 언어 문자를 사용한다. 여러 가지 통용되는 언어 문자로 동시에 직무를 집행할 때 구역 자치 민족의 언어 문자를 위주로 할 수 있다.”<sup>30)</sup>고 규정했는바 … 셋째, 한국어와 한글로 조선족의 문화 교육 사업을 추진하며 조선족의 발전과 번영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일찍 1938년 중국 공산당 제6기 제6차 전원회의에서 모택동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소수민족의 문화, 종교 습관을 존중해야 한다. 그들에게 한어(漢語), 한문을 배우라고 강박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돈을 내어 그들이 자기의 언어 문자를 사용하는 문화, 교육 사업을 발전시켜 주어야 한다.”(이득춘, 1994:60)

위와 같이 중국은 각기 다른 소수민족의 주체성, 평등, 언어, 문자, 문화 등을 인정하고 발전시키려고 하였다.<sup>31)</sup> 이러한 사회적 배경을 힘입은 조선족들은 그들의

28) 이익섭(1994:243~244)에서는 이 4가지를 각각 ‘이민, 식민지화, 연방화, 언어 접촉’으로 나누고 있다. 특히 ‘이민’은 두 형태로 나뉘는데, 하나는 대집단의 이민으로서 어떤 대집단의 민족이 자기들 영토를 확장하여 이웃 지역으로 옮기는 경우이다. 이때는 토착민이 소집단으로 전락한 이중 언어 사회가 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소집단의 종족이 다른 민족으로 이루어진 나라로 이주해 가는 경우이다. 중국 조선족의 경우는 후자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다언어 현상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Fasold(1984:9~12), 이익섭(1994:243~247) 등을 참고할 것.

29) 중국 헌법 제4조를 말한다. 이는 본고의 서론을 참고할 것.

30) 여기서 말하는 ‘구역 자치 민족’이란 바로 그 지역에서의 주체(主體) 민족인 것이다. 연변 조선족 자치 주로 놓고 보면 조선족이 주체 민족이며, ‘구역 자치 민족의 언어 문자’란 바로 조선족 한국어와 한글을 가리키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어와 조선족 한국어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조선족 한국어를 위주로 해야 된다는 것이다(이득춘, 1994:60).

31) 중국의 ‘민족어문정책’과 ‘조선족 한국어문사업’ 등에 대한 것은 최윤갑(1992:1~43)을, 1954년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1984년 ‘중화인민공화국 민족 구역 자치법’ 등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에 대한 것은 태평무(1999:263~267)을 참고할 것.



민족 교육에 힘써왔는데, 이에 대한 것은 김영수(2006)에서 살펴볼 수 있다.

조선족의 민족 교육<sup>32)</sup>은 1990년대 전반기까지는 중국의 56개 민족 가운데서 앞자리에 있었다. 예컨대 연변에서만 하여도 9년제 의무 교육을 보급하였고 (중국) 전국에서 유일한 민족대학을 갖고 있어 소학교, 중학교, 고급중학교, 대학교의 교육체계<sup>33)</sup>를 형성하였으며 질적으로도 높은 수준을 확보하여 1993년 중국 곤명에서 진행된 중국 최초의 ‘소수민족인구국제연구토론회’에서 조선족은 중국 56개 민족 중 문화 자질이 가장 높으며 이미 세계 선진국가의 수준에 접근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김영수, 2006:22).

위와 같은 조선족의 노력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조선족 한국어는 잘 보존되고 계승되고 있다. 그러나 박금혜(2004), 김영수(2006), 마금선(2009) 등에서는 근래에 이르러 조선족의 민족 및 조선족 한국어 교육에 위기를 맞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sup>34)</sup>

박금혜(2004:104~108)는 조선족 인구의 급감, 농촌학교 교육의 위축, 민족 교육 이념의 갈등, 교사의 유실과 질적 문제, 조선족 결혼 가정의 증가 등으로 인해 조선족 교육에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고 하였다. 김영수(2006:22~23)에서는 한어(漢語) 선호 경향, 낮은 교수(教授) 수준, 교사 및 조선족 수의 감소 등 중국, 특히 연변과 같은 조선족 집거지의 농촌 등지에서의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sup>35)</sup>

마금선(2009:65~66)에서는 중국에 이주한 조선족 세대<sup>36)</sup>에 따른 조선족의 조선

32) 여기에서의 ‘우리 민족’은 ‘조선족’을, ‘민족 교육’은 ‘민족의 정체성과 언어를 함께 교육하는 것’을 가리킨다.

33) 박금혜(2004:103)에 따르면 이러한 교육체계가 나타나 있다. 6, 7~13세는 소학교, 13~16세는 (초급)중학교, 16~19세는 고급중학교, 19세 이상은 대학교라는 단계로 나눌 수 있다.

34) 조선족 교육의 위기 및 문제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득춘(1994:67~70), 박금혜(2004:104~108), 신승용(2006:257~259), 김영수(2006:22~23), 마금선(2009:65~66, 80~84) 등을 참고할 것.

35) 김영수(2006:22~23)은 조선족 민족 교육의 위기에 대한 원인을 크게 4가지로 보고 있다. 첫째, 조선족 한국어보다는 한어를 선호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 둘째, 조선족 학교의 교수 수준이 한족 학교보다 낮다. 셋째는 중소학교에서 교원 직업에 종사하려는 사람 수의 감소이며, 마지막 넷째는 농촌의 유동 인구가 심하고 그에 따른 조선족 수 및 출산율의 감소이다. 마금선(2009)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과 함께 학습 동기를 유발하지 못하는 교재 내용, 학생들의 잡지, 도서 등의 읽을거리 부족 등을 들고 있다.

36) 신승용(2006:242)에서는 조선족의 언어 변화에서 원적지 방언을 그대로 유지한 1세대와 1세대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가진 2세대로 구분하고 있다. 마금선(2009:65~66)에서는 이주한 세대를 4개의 세대로 나누어 논하고 있으나 이주 시기가 언제인지, 각 세대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누구인지 등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4세대를 지금 청소년이나 대학생 정도의 20대 전후라고 생각한다면, 이때의 1세대는 아

족 한국어 구사 정도를 제시하고 있다. 이주한 조선족 1, 2, 3세대는 한어에 비해 조선족 한국어를 잘 구사한다. 이들은 세대가 내려갈수록 한어를 사용하려는 모습이 보이면서 조선족 집거 지역을 떠나거나, 조선족 학교가 아닌 한족(漢族) 학교에 자녀를 보내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sup>37)</sup> 특히 4세대에 내려와서는 한족 학교에 진학하는 학생이 많아짐에 따라 한어는 완벽히 구사하지만 조선족 한국어를 잘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와 같이 조선족의 민족 교육은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조선족 집거 지역인 연변에서는 신문, 서적이 모두 한국어로 출판되고 있고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도 한국어 전용 채널이 있다(마금선, 2009:63). 또한 기타 공적 매체, 정부 문서, 도로 표지, 회사 간판 등이 조선족 한국어와 한어(漢語), 두 언어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의 공용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족들은 민족어인 조선족 한국어를 지키려는 노력이 강하다고 볼 수 있겠다.<sup>38)</sup>

## 2.3. 한국 내 조선족 현황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09)<sup>39)</sup>에 따르면 2008년 12월 31일 현재 국내 체류 외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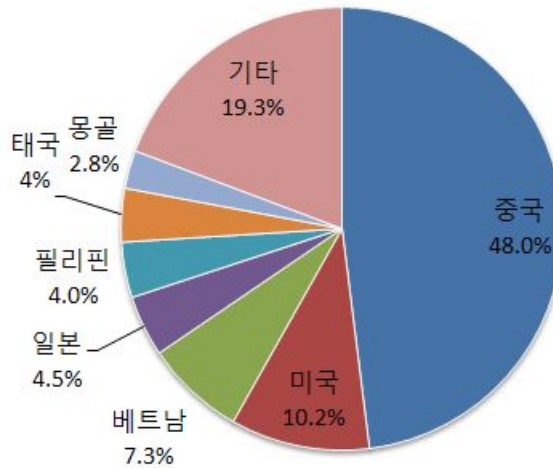
마도 해방직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1949년 10월) 전후에 살던 노년층 혹은 부모 세대 정도로 예측해볼 수 있겠다. 하지만 연구마다 세대를 나누는 기준이 모호하여 통일된 시대를 구분하기가 어려웠다. 이를 미루어볼 때, 조선족의 이주 세대 구분에 대해 정립된 기준이 필요할 듯하다.

37) 마금선(2009:66)에서는 시골보다 도시가 한어(漢語)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도시에서는 한어가 공용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시되고, 한족들과 많이 뒤섞여 살면서 한어에 많이 노출되기에 이중 언어 구사 환경이 좋을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조선족 부모들은 자녀의 대학, 취직 등에 관련하여 한어의 중요성을 알기에 한어 교육을 중시한다. 또한 시골 학교보다는 도시 학교가 교사 수준 및 언어 환경이 훨씬 좋기 때문에 학생들의 한어 수준도 비교적 높다.

38) 강희숙(2003:2)에서는 “그들은 이주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복잡한 이중문화의 환경 속에서 수많은 시련을 겪으면서도 모국어인 한국어를 유지·보존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왔다.”고 하였다. 박경래(2002a:118~119)를 보면 조선족 조사응답자의 65.2%가 스스로 ‘모국어를 잘하는 편’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반면에 ‘못한다’ 또는 ‘잘 못한다’는 각각 3.2%, 0.6%로 거의 대부분이 모국어인 조선족 한국어를 잘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박경래(2002a:124)에서는 ‘조선족 한국어와 한어 중에서 어느 말을 더 잘하느냐’는 질문에서 조선족 한국어를 잘하는 조사대상자가 61.0%로 한어를 더 잘하는 9.5%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율임을 볼 수 있다.

39)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는 매년 ‘통계 연보’를 내놓는다. 2009년 전반기에 2008년 통계가 나오기 때문에 2009년의 통계를 사용하지 못함이 아쉬운 점이다. 따라서 본고는 ‘통계 연보 2009’(2008년 통

인은 1,158,866명으로 외국인 유학생이 71,531명(6.2%), 결혼이민자가 122,552명(10.6%)이다. 국적으로 분류한 체류 외국인 현황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국적별 체류 외국인 분포<sup>40)</sup>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48.0%), 미국(10.2%), 베트남(7.3%), 일본(4.5%), 필리핀(4.0%), 태국(3.9%) 등의 순이며, 중국 동포인 조선족에 대한 우대정책인 방문취업제<sup>41)</sup>, 베트남과 필리핀, 태국 등은 고용허가제 및 국제결혼으로 입국한 외국인 수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09:279). 이를 나타내면 <표 1>과 같고, 연도에 따른 체류 외국인의 증감은 <표 2>와 같다.

계)를 최신 자료로 활용하였다.

40)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09:279)의 자료를 토대로 작성하였다.

41) ‘방문취업제’란 중국과 옛 소련 등지의 동포들에게 1회 입국 시 최장 3년간 체류할 수 있으며 5년간 유효한 사증(H-2)을 발급해 주고 32개 업종에서 간소한 절차만 마치면 취업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http://www.immigration.go.kr>)를 참고할 것.

<표 1> 체류 외국인 국적별 현황<sup>42)</sup>

구분 \ 국적	체류자 수(명)	체류 비율(%)
중 국	556,517	48.0
미 국	117,986	10.2
베 트 남	84,763	7.3
일 본	51,763	4.5
필 리 핀	46,894	4.0
태 국	45,198	3.9
몽 골	32,206	2.8
인도네시아	29,913	2.6
타 이 완	26,977	2.3
우즈베키스탄	21,569	1.9
기 타	145,080	12.5
합 계	1,158,866	100.0

<표 2> 연도별 체류 외국인 현황<sup>43)</sup>

구분 \ 연도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체류 외국인(명)	269,641	491,324	747,467	910,149	1,066,273	1,158,8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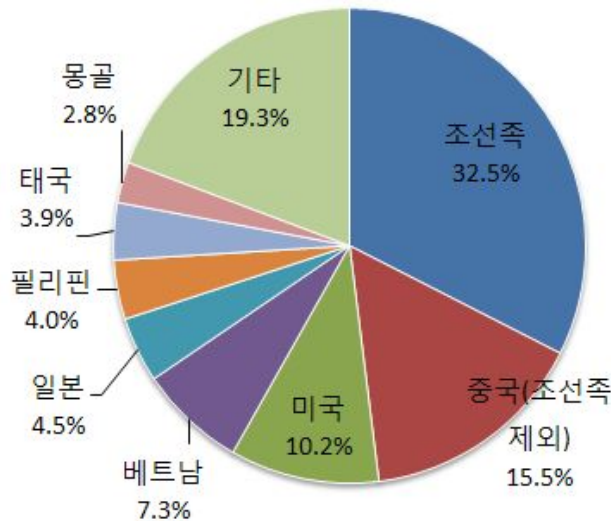
1995년 269,641명이던 국내 체류 외국인이 2008년에는 1,158,866명으로 지난 13년 사이에 329.8%가 증가하였다. 특히 2007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체류 외국인 100만

42)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09:279~280)의 자료를 토대로 작성하였다.

43)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08:335, 2009:273)의 자료를 토대로 작성하였다.

명 시대가 되었다. 이는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꾸준히 증가한 중국인 동포의 유입과 우리나라의 국제적 지위 향상으로 유학생 및 전문 인력의 증가, 저출산·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한 산업 연수 및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증가한 것이며 결혼이민자의 증가로 우리나라도 다인종·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06:354).

국내에 체류 중인 조선족<sup>44)</sup>은 앞서 분류한 체류 외국인 중에서 중국에 포함되어 있다. 200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체류 외국인 중 중국인이 556,517명(48.0%)을 차지하고 있고, 그 중 조선족은 376,563명으로 중국인의 67.7%이며 전체 체류 외국인의 32.5%에 해당한다. 즉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 중에서 2명 중 1명이 중국인이고, 3명 중 1명이 조선족인 셈이다.



[그림 2] 체류 외국인 중 조선족 분포<sup>45)</sup>

[그림 2]에서 보듯이 조선족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비단 2008년에만 국한된 수치가 아니다. 최근 4년의 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꾸준히 그 수가 증가함을 알 수 있는데, 이를 제시하면 다음 <표 3>와 [그림 3]과 같다.

44)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출간된 대부분의 통계자료들은 조선족을 ‘한국계 중국인’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통일성 있게 ‘한국계 중국인’을 ‘조선족’으로 바꾸어 사용하였다.

45)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09:279~280, 716)의 자료를 토대로 작성하였다.

<표 3> 연도별 조선족 현황<sup>46)</sup>

(단위: 명, %\*)

연도 \ 구분(명)	체류 외국인	중 국 인**	조 선 족
2005년	747,467	114,441(15.3)	167,589(22.4)
2006년	910,149	145,383(16.0)	236,854(26.0)
2007년	1,066,273	174,806(16.4)	328,621(30.8)
2008년	1,158,866	179,954(15.5)	376,563(32.5)

\*전체에 대한 해당자의 비율 \*\* 조선족 제외.



[그림 3] 연도별 조선족 증감 현황<sup>47)</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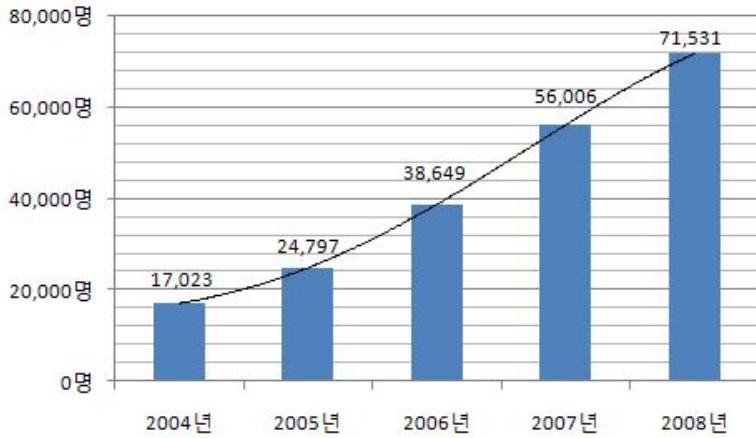
2005년에는 167,589명이었던 조선족은 4년 후인 2008년에는 무려 376,563명으로 2.25배 가까이 늘어났다. 뿐만 아니라 연도에 따라 각각 22.4%, 26.0%, 30.8%, 32.5%로 총 체류 외국인에 대하여 조선족이 차지하는 비율도 함께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유학생 및 결혼이민자는 한국에 얼마만큼 체류하고 있을까?<sup>48)</sup> 먼저 유

46)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06:356~357, 2007:259~260, 2008:339~341, 2009:279~280)의 자료를 토대로 작성하였다.

47)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06:356~357, 2007:259~260, 2008:339~341, 2009:279~280)의 자료를 토대로 작성하였다.

학생 전체의 증감 현황은 다음 [그림 4]와 같다.



[그림 4] 연도별 유학생 증감 현황<sup>49)</sup>

유학생은 해가 거듭될수록 그 숫자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07:256, 258)에 의하면 2002년 유학생의 숫자는 7,288명이었다. 그러나 불과 2년 후인 2004년 유학생은 17,023명이며, 2008년에는 71,531명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즉 2008년은 2004년에 비하면 4년 만에 320.2%가, 2002년에 비하면 1568.2%가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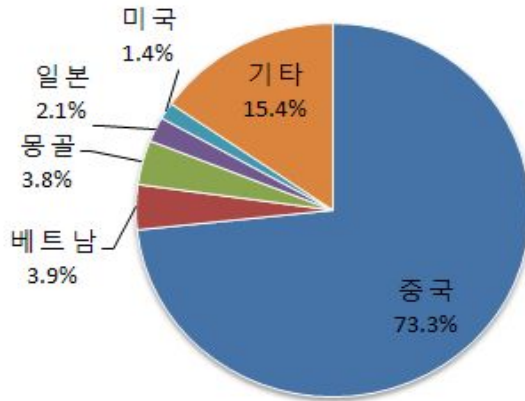
유학생의 국적은 어떠한가에 대한 것을 제시하면 다음 <표 4>와 [그림 5]와 같다.

48) 전문 인력, 산업연수, 고용허가제 등에 관한 외국인 수치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출간되는 통계연보 및 통계월보(<http://www.immigration.go.kr/>)를 참고하며, 본고에서는 조사대상이 되는 유학생과 결혼이민자에 대한 수치로 한정하여 다루겠다. 전체 외국인의 수치를 제시하고, 그 가운데에서 조선족에 대한 것을 제시하고자 한다.

49)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출간한 『통계연보 2007』(2008년 출판)과 『통계연보 2008』(2009년 출판)에서의 유학생 수치는 서로 다르다. 그 이유는 『통계연보 2007』과 이전 연보에서는 유학생을 분류할 때 D-2(유학비자)만 산정하였으나, 『통계연보 2008』에서는 D-2(유학비자)와 D44(국어연수비자)를 유학생으로 분류했기 때문에, 그 수에 차이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림 3]은 『통계연보 2008』의 자료(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09:274)를 토대로 작성하였다.

<표 4> 국적별 유학생 현황<sup>50)</sup>

국 적	유학생 수(명)
중 국	52,442
베 트 남	2,788
몽 골	2,747
일 본	1,537
미 국	1,032
기 타	10,985
합 계	71,531



[그림 5] 국적별 유학생 분포<sup>51)</sup>

위의 <표 4>과 [그림 5]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 유학생의 73.3%를 차지하는 중국인은 52,442명으로 D44(국어연수비자)에 15,059명, D-2(유학비자)<sup>52)</sup>에 37,363명으로 이는 다른 국가의 유학생 수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이다. 약 130여 개 국에서 한국으로 유학을 왔다. 이 가운데 조선족 유학생의 현황은 어떠한지 다음 <표 5>와 [그림 6]을 보기로 한다.

50)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09:670~675)의 자료를 토대로 분류하여 작성하였다.

51)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09:670~675)의 자료를 토대로 분류하여 작성하였다.

52) 유학비자(D-2)는 유학(D-2), 전문학사(D2A), 학사유학(D2B), 석사유학(D2C), 박사유학(D2D), 연구유학(D2E)으로 나뉜다. 본고에는 이 유학에 관한 비자를 하나로 합쳐 D-2로 표시한다. 이들에 대한 자세한 자료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09:670~675)를 참고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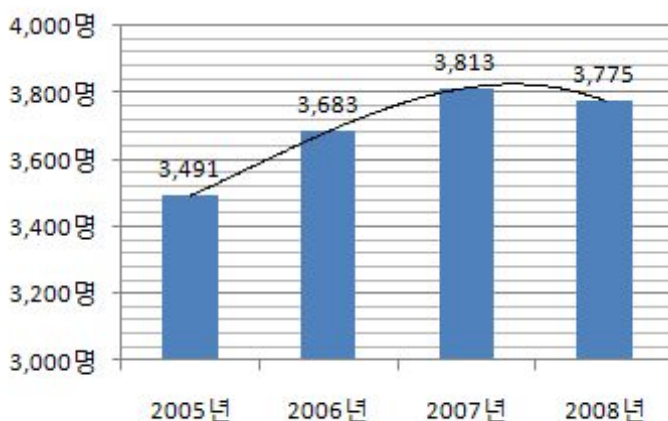


<표 5> 연도별 조선족 유학생 현황<sup>53)</sup>

(단위: 명, %\*)

연도 \ 구분(명)	유학생 전체	중국 유학생**	조선족 유학생
2005년	24,797	9,914(40.0)	3,491(14.1)
2006년	38,649	20,957(54.2)	3,683(9.5)
2007년	56,006	35,626(63.6)	3,813(6.8)
2008년	71,531	48,647(68.0)	3,775(5.3)

\*전체에 대한 해당자의 비율 \*\* 조선족 제외.



[그림 6] 연도별 조선족 유학생 증감 현황<sup>5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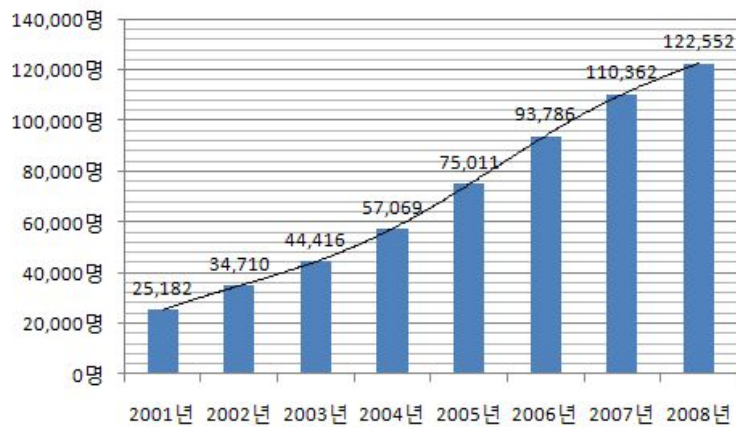
2005년에는 24,797명이었던 유학생은 4년 후인 2008년에는 무려 71,531명으로 거의 2.88배 늘어났다. 해마다 1.3-1.6배 정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중국 유학생(조선족 포함)의 경우도 해마다 1.3-1.8배 정도로 꾸준히 증가하여 4년 만에 2.9배가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조선족 유학생의 수는 비슷한 수준이다.

53)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06:370~380, 2007:262~263, 2008:344~345, 2009:670)의 자료를 토대로 작성하였다. 유학생 통계에 대한 자료는 2007년 통계자료까지는 D44(국어연수유학)가 빠져있다. 따라서 정확하며 획일화된 자료를 위하여 2005~2007년의 자료들은 D44와 D-2를 모두 합한 것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54)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06:370~380, 2007:262~263, 2008:344~345, 2009:670)의 자료를 토대로 작성하였다. 유학생 통계에 대한 자료는 2007년 통계자료까지는 D44(국어연수유학)가 빠져있다. 따라서 정확하며 획일화된 자료를 위하여 2005~2007년의 자료들은 D44와 D-2를 모두 합한 것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오히려 유학생 전체에 대한 비율로 따질 경우에는 연도별 비율은 각각 14.1%, 9.5%, 6.8%, 5.3%로 점점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전체 유학생 중에서 그 체류 자격이 D44(국어연수비자)인 조선족의 수가 절대적으로 작다는 것이다.

결혼이민자<sup>55)</sup>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으로서 여성이 88.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가 갈수록 그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2008년 결혼이민자는 122,552명으로 2001년 25,182명에 비해 약 386.7% 증가하였다. 연도별 현황을 보면 다음 [그림 7]과 같다.



[그림 7] 연도별 결혼이민자 증감 현황<sup>5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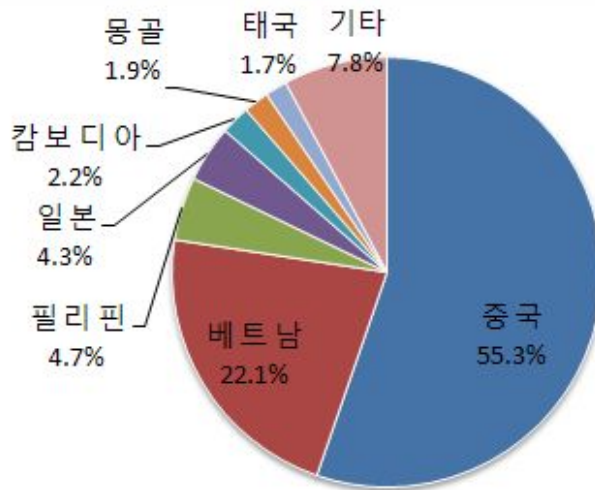
1980년대는 종교단체(통일교)를 통하여 일본 여성들이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입국 하였으나 2000년대 초부터는 중국, 몽골, 필리핀 등으로 국적이 확대되었고, 최근에는 베트남,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등으로 그 출신지가 점점 다변화 되어 가고 있다(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09:682). 국적별로 그 현황을 나열하면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 몽골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수치와 분포는 다음의 <표 6>과 [그림 8]과 같다.

55) 결혼이민자는 체류 외국인 중에서 ‘국민의 배우자’ 체류 자격인 F21 및 F13 비자를 가진 자를 말한다.

56)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09:681)의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다. 국적에 따른 남녀 현황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09:682)를, 지역별 현황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09:683)을 참고할 것.

<표 6> 국적별 결혼이민자 현황<sup>57)</sup>

국	적	결혼이민자 수(명)
중	국	67,787
베	트 남	27,092
필	리 핀	5,819
일	본	5,223
캄	보 디 아	2,683
몽	골	2,325
태	국	2,041
기	타	9,582
합	계	122,552



[그림 8] 국적별 결혼이민자 분포<sup>58)</sup>

결혼이민자의 경우도 단연 중국인의 수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아래의 <표 7>에  
 서와 같이 전체 결혼이민자 중에서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부터 연도별  
 로 각각 54.8%, 60.0%, 57.3%, 55.3%를 차지하고 있다. 조선족에 대한 비율은 각각  
 37.0%, 38.2%, 33.2%, 29.1%가 되면서 다른 민족 출신의 중국인보다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57)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09:670~675)의 자료를 토대로 작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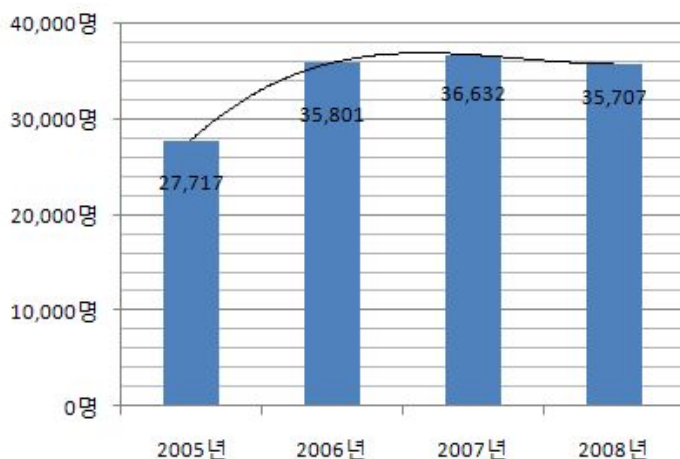
58)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09:670~675)의 자료를 토대로 작성하였다.

<표 7> 연도별 조선족 결혼이민자 현황<sup>59)</sup>

(단위: 명, %\*)

구분(명) 연도	결혼이민자 전체	중국 결혼이민자**	조선족 결혼이민자
2005년	75,011	13,401(17.9)	27,717(37.0)
2006년	93,786	20,485(21.8)	35,801(38.2)
2007년	110,362	26,571(24.1)	36,632(33.2)
2008년	122,522	32,080(26.2)	35,707(29.1)

\*전체에 대한 해당자의 비율 \*\* 조선족 제외.



[그림 9] 연도별 조선족 결혼이민자 증감 현황<sup>60)</sup>

2005년에는 75,011명이었던 전체 결혼이민자는 2008년에는 122,522명으로 약 1.6배가 증가였고, 조선족 결혼이민자의 경우에는 4년 사이에 약 1.3배가 증가하였다. 2008년에 들어서 그 숫자가 약간 줄어들기는 했으나, 단일 민족상으로 본다면 가장 많은 수이다.

59)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06:597, 2007:491~492, 2008:599~600, 2009:681~682)의 자료를 토대로 작성하였다.

60)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06:597, 2007:491~492, 2008:599~600, 2009:681~682)의 자료를 토대로 작성하였다.

## 제3장 조선족의 언어 태도

본고는 한국에 살고 있는 조선족의 언어 태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선족의 체류 자격은 유학, 결혼, 취업, 방문 등 여러 형태가 있지만, 본고에서는 유학생과 결혼이민자에 대해 조사하였다. 설문 조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이들의 나이, 성별, 체류 자격, 체류 지역, 체류 기간 등에 관련한 기본 사항, 제1언어, 부모의 민족과 사용 언어 등에 대해 제시하였다.

둘째, 조선족 조사대상자의 한국어와 조선족 한국어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두 언어가 얼마나 비슷한지, 다른 점은 무엇인지, 각 언어에 대한 개인적 느낌이 어떠한지 등을 조사하였다. 또한 조선족 한국어가 한국어와 북한어<sup>61)</sup> 중에서 어떤 것과 비슷한지, 그리고 그 이유를 파악하였다. 조사된 결과를 표나 그림으로 제시하였다.

셋째, 조선족 조사대상자들이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겪고 있는 언어적 차원에서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또한 이들의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 및 항목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것들을 토대로 해외 동포에 대한 언어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조사 기간은 2010년 3월 15일부터 4월 7일까지 약 3주간이다.<sup>62)</sup> 조사대상 지역은 광주광역시와 전남으로 한정하였으며, 특히 유학생의 경우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대학의 학생들이며, 결혼이민자의 경우는 광주광역시 및 전남에 살고 있는 이주여성들이다. 설문 조사는 조선대, 호남대, 조선이공대의 학생들과 몇몇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통역을 맡고 있는 결혼이민자의 도움으로 이루어졌다.

---

61) '북한어'는 조선족 한국어와 다르게 '북한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규정한다.

62) 설문 조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3월 9일부터 14일까지 약 1주 동안 선행 조사를 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을 위해 실시되었다. 유학생 7명과 결혼이민자 5명으로 진행된 선행 조사를 토대로 질문지를 수정 및 보완할 수 있었다.

설문지는 한글로 작성하였는데, 한글에 익숙하지 않거나 용어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중국어로 번역된 설문지도 준비하였다.<sup>63)</sup> 설문지는 유학생과 결혼이민자에게 각각 80부씩 총 160부가 배포되었다. 회수된 설문지는 총 115부였으며 이 가운데 112부가 분석이 가능하였다.<sup>64)</sup> 분석에서 제외된 3부는 성실하게 응답하지 않아 공란이 많은 것이었다.

### 3.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성별, 나이, 체류 기간, 체류 지역 등의 분포는 다음 <표 8>과 같다.

63) 유학생의 경우 한글과 그 의미에 대해 대부분 정확히 인식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결혼이민자의 경우는 가령, 한글을 읽기 어렵다든지 혹은 설문 내용 및 그 뜻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었다.

64) 설문지의 회수율을 볼 때, 결혼이민자보다는 유학생의 회수율이 더 높다. 이는 학기가 시작하여서 학교에서 자주 접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에 반하여 결혼이민자의 경우에는 자신들이 조선족임을 드러내려고 하지도 않을뿐더러 조선족임을 드러내더라도 설문에 응하지 않으려는 의지가 매우 강하였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같은 기관에서도 설문 조사의 의뢰를 단호히 거절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결혼이민자에게 설문 조사를 실시함에 매우 어려움이 있었다. 회수된 설문지는 다음의 표와 같다.

	배포 수	회수 수	유효 수
유 학생	80	71	70
결혼이민자	80	45	42
합 계	160	115	112

<표 8> 조사대상자의 기본 사항

(단위: 명, %)

구 분		유 학 생	결혼이민자	합 계
성 별	남 자	37(33.0)	-	37(33.0)
	여 자	33(29.5)	42(37.5)	75(67.0)
	합 계	70(62.5)	42(37.5)	112(100.0)
나 이	30세 이하	68(60.7)	9(8.0)	77(68.7)
	31~40세	-	27(24.1)	27(24.1)
	41~50세	2(1.8)	5(4.5)	7(6.3)
	51세 이상	-	1(0.9)	1(0.9)
	합 계	70(62.5)	42(37.5)	112(100.0)
체류 기간	0~1년	11(9.8)	-	11(9.8)
	1~2년	23(20.5)	3(2.7)	26(23.2)
	2~3년	19(17.0)	7(8.0)	26(23.2)
	3년 이상	17(15.2)	32(28.6)	49(43.8)
	합 계	70(62.5)	42(37.5)	112(100.0)
체류 지역	광 주	70(62.5)	22(19.6)	92(82.1)
	전 남	-	20(17.9)	20(17.9)
	합 계	70(62.5)	42(37.5)	112(100.0)

조사대상자들의 체류 자격을 보면 유학생 70명(62.5%), 결혼이민자 42명(37.5%)으로 유학생 조사대상자가 더 많았다. 성별을 살펴보면 남자 37명(33.0%), 여자 75명(67.0%)으로 여자가 거의 2배에 달하였다.<sup>65)</sup> 나이는 유학생들이 보통 20대였기에 30세 이하가 68.8%로 가장 많았다. 결혼이민자는 보통 30대가 가장 많았으며, 72세도 1명 있었다. 체류 기간에 따라서 유학생은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반면에 결혼이민자는 3년 이상인 조사대상자들이 많았다. 체류 지역에 따라서는 광주광역시에 있는 조사대상자가 전남에 비해 3배 정도 많았다. 이는 모든 유학생과 상당수

65) 남자 조사대상자의 경우, 유학생에서는 여자와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결혼이민자의 경우에는 남자 조사대상자가 없고 모두가 여자 조사대상자였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의 총 비율을 보면 여자의 비율이 더 높았다.

의 결혼이민자가 광주에 체류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조사대상자들이 태어나서 처음 배운 언어, 즉 제1언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9> 조사대상자의 제1언어

(단위: 명, %)

구 분		유 학 생	결혼이민자	합 계
조 선 족 한 국 어	남 자	28(25.0)	-	28(25.0)
	여 자	23(20.5)	36(32.2)	59(52.7)
	소 계	51(45.5)	36(32.2)	87(77.7)
중 국 어	남 자	9(8.0)	-	9(8.0)
	여 자	7(6.3)	6(5.4)	13(11.6)
	소 계	16(14.3)	6(5.4)	22(19.6)
기 타	남 자	-	-	-
	여 자	3(2.7)	-	3(2.7)
	소 계	3(2.7)	-	3(2.7)
합 계		70(62.5)	42(37.5)	112(100.0)

위를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조사대상자의 제1언어는 조선족 한국어 87명(77.7%), 중국어 22명(19.6%), 기타 3명(2.7%)<sup>66)</sup>으로, 조선족 한국어를 제1언어로 습득한 조사대상자가 가장 많았다. 체류 자격에 상관없이 조선족 한국어를 처음 배운 조사대상자의 수가 87명으로 77.7%에 달하였다. 물론 종족의 구분이 부모의 민족에 따르기는 하지만, 이들의 부모들도 양쪽 모두 조선족이 많았다. 조사대상자 부모들의 종족에 관한 것은 다음 <표 10>과 같다.

66) '기타'에 응답한 사람들은 부모의 영향으로 어렸을 때부터 자유자재로 조선족 한국어와 중국어의 코드 전환(code switching)이 이루어졌다고 하였다. 따라서 어느 한 언어를 먼저 배웠다기보다는 두 언어를 동시에 습득한 것으로 보고 '기타'로 분류하였다.



<표 10> 조사대상자 부모의 조선족 여부

(단위: 명, %)

구 분		유 학 생	결혼이민자	합 계
아버지만 조선족	남 자	2(1.8)	-	2(1.8)
	여 자	2(1.8)	2(1.8)	4(3.6)
	소 계	4(3.6)	2(1.8)	6(5.4)
어머니만 조선족	남 자	3(2.7)	-	3(2.7)
	여 자	4(3.6)	2(1.8)	6(5.4)
	소 계	7(6.3)	2(1.8)	9(8.0)
부모 모두 조선족	남 자	32(28.6)	-	32(28.6)
	여 자	27(24.1)	38(33.9)	65(58.0)
	소 계	59(52.7)	38(33.9)	97(86.6)
합 계		70(62.5)	42(37.5)	112(100.0)

<표 10>과 같이 조사대상자 부모의 조선족 여부는 ‘아버지만 조선족’, ‘어머니만 조선족’, ‘부모 모두 조선족’ 각각 6명(5.4%), 9명(8.0%), 97명(86.6%)로 나타났다. 성별이나 체류 자격에 상관없이 ‘부모 모두 조선족’이라 응답한 조사대상자가 월등히 많았다. 다시 말해서 총 224명의 부모들 중에서 15명을 뺀 209명의 부모가 조선족인 셈이다. 이는 조사대상자 대부분의 부모가 모두 조선족이거나 어느 한쪽이 조선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부모가 사용하는 언어가 어떤 것인지는 다음 <표 11>과 같다.

<표 11> 조사대상자 부모의 사용 언어

(단위: 명, %)

구 분		유 학 생	결혼이민자	합 계
조선족 한국어만 사용	부	26(23.2)	14(12.5)	40(35.7)
	모	26(23.2)	15(13.4)	41(36.6)
중국어만 사용	부	10(8.9)	2(1.8)	12(10.7)
	모	10(8.9)	2(1.8)	12(10.7)
조선족 한국어와 중국어 모두 사용	부	34(30.4)	26(23.2)	60(53.6)
	모	34(30.4)	25(22.3)	59(52.7)
합 계	부	70(62.5)	42(37.5)	112(100.0)
	모	70(62.5)	42(37.5)	112(100.0)

여기에서 보듯이 조사대상자 부모의 사용 언어는 거의 비슷한 비율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부모 모두가 조선족인 경우는 ‘조선족 한국어만’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부모의 민족이 다른 경우는 조선족인 부모가 모두 조선족 한국어와 중국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즉, 같은 조선족이 아닌 다른 민족과 결혼하더라도 자신의 모어인 조선족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그것을 자신의 자녀에게 전수하고 있었다.

유학생 조사대상자의 교육 현황을 보면 박사 과정 2명, 석사 과정 1명, 학부생 67명으로 대부분 학부생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sup>67)</sup> 이들의 세부 전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67) 결혼이민자의 교육 현황은 조사하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결혼이민자들이 그들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예비 조사의 단계에서 5명의 결혼이민자 모두가 교육 현황에 대한 설문 항목에서 완강한 거부 의사를 표하였다. 따라서 결혼이민자의 교육 현황은 조사하지 못하였으며, 유학생의 경우만 조사하였다.

<표 12> 유학생 조사대상자의 세부 전공<sup>68)</sup>

전 공	인문 계열	사회 계열	상경 계열	자연 계열	이공 계열	의학 계열	예능 계열	합 계
학생 수	7	9	35	1	12	4	2	70

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상경계열에 속한 유학생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이공계열, 사회계열의 순이었다.

## 3.2. 조선족의 언어 태도

### 3.2.1. 유학생의 경우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유학생 조사대상자는 광주광역시 소재 대학의 학생 70명이다. 먼저 한국어와 조선족 한국어에 대해 얼마나 비슷한가를 물어보았다. 이에 대한 응답의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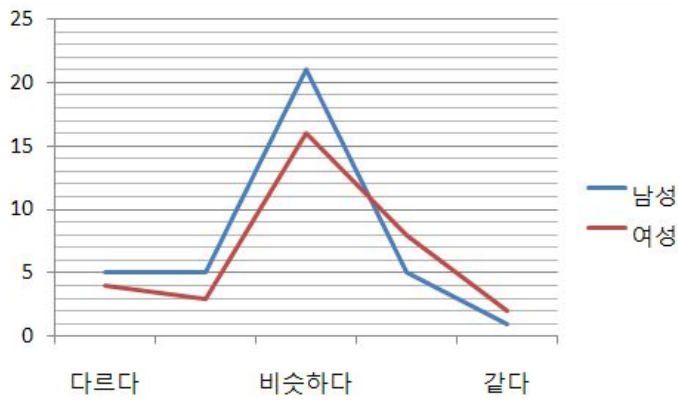
<표 13> 한국어와 조선족 한국어의 비슷한 정도(유학생)

(단위: 명, %)

구 분	비슷하다					합 계
	①	②	③	④	⑤	
남 자	5(7.1)	5(7.1)	21(30.0)	5(7.1)	1(1.4)	37(52.9)
여 자	4(5.7)	3(4.3)	16(22.9)	8(11.4)	2(2.9)	33(47.1)
합 계	9(12.9)	8(11.4)	37(52.9)	13(18.6)	3(4.3)	70(100.0)

68) 인문계열 총 7명에 박사 과정 2명, 석사 과정 1명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학부생이다.

위의 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한국어와 조선족 한국어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는 응답이 37명(52.9%)으로 가장 많았다. ‘다르거나 다소 다르다’는 응답은 17명, ‘같거나 다소 같다’는 응답은 16명으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따라서 한국어와 조선족 한국어의 비슷한 정도에서는 응답도 절반 이상이었으며, 그 분포를 보아도 ‘비슷하다’라는 의견을 대체적으로 보이고 있다. 이 분포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0] 한국어와 조선족 한국어의 비슷한 정도(유학생)

위의 그림에서 한국어와 조선족 한국어가 ‘같다’고 한 조사대상자는 3명이었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조사대상자 중에서 두 언어가 같지 않다면 어느 점이 다른지 알아보았다. 이에 대한 응답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 <표 14>와 같다.

<표 14> 한국어와 조선족 한국어의 차이점 순위(유학생)

(단위: 명, %)

구 분		1순위	2순위	3순위
한글 및 한자 표 기	남 자	3(4.3)	7(10.0)	9(12.9)
	여 자	2(2.9)	-	9(12.9)
	소 계	5(7.1)	7(10.0)	18(25.7)
발음, 억양, 강세	남 자	13(18.6)	16(22.9)	4(5.7)
	여 자	16(22.9)	16(22.9)	1(1.4)
	소 계	29(41.4)	32(45.7)	5(7.1)
외래어 및 외국어 사 용	남 자	17(24.3)	9(12.9)	4(5.7)
	여 자	15(21.4)	12(17.1)	3(4.3)
	소 계	32(45.7)	21(30.0)	7(10.0)
뜻이 다른 한자어	남 자	2(2.9)	2(2.9)	4(5.7)
	여 자	-	2(2.9)	10(14.3)
	소 계	2(2.9)	4(5.7)	14(20.0)
문법 및 어순	남 자	2(2.9)	1(1.4)	5(7.1)
	여 자	-	2(2.9)	5(7.1)
	소 계	2(2.9)	3(4.3)	10(14.3)
기 타	남 자	-	-	5(7.1)
	여 자	-	-	2(2.9)
	소 계	-	-	7(10.0)
무 응 답	남 자	-	2(2.9)	6(8.6)
	여 자	-	1(1.4)	3(4.3)
	소 계	-	3(4.3)	9(12.9)
합 계		70(100.0)	70(100.0)	70(100.0)

위의 표에서 보듯이 한국어와 조선족 한국어에 대하여 남녀 유학생이 인식하고 있는 차이점이 무엇인지 그 순위대로 알 수 있다. 남자 유학생의 경우는 ‘외래어 및 외국어 사용’이 24.3%, ‘발음, 억양, 강세’가 22.9%, ‘한글 및 한자 표기’가 12.9%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여자 유학생의 경우에는 ‘발음, 억양, 강세’가 22.9%로 같은 비율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뜻이 다른 한자어’가 14.3%로 3순위에 해당하였다.

남녀를 합한 총 유학생의 순위는 ‘발음, 억양, 강세’와 ‘외래어 및 외국어 사용’이 각각 45.7%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으며, ‘한글 및 한자 표기’가 25.7%로 그 뒤를 이

었다. 설문 5의 응답 결과를 남녀를 합하고, 순위가 아닌 빈도수로 나타내면 다음 <표 15>와 같다.

<표 15> 한국어와 조선족 한국어의 차이점 빈도(유학생)<sup>69)</sup>

(단위: 빈도수, %)

구 분	빈 도
한글 및 한자 표기	30(42.9)
발음, 억양, 강세	66(94.3)
외래어 및 외국어 사용	60(85.7)
뜻이 다른 한자어	20(28.6)
문법 및 어순	15(21.4)
기 타	7(10.0)
무 응 답	12(17.1)
합 계	210(300.0)

여기에서 보듯이 ‘발음, 억양, 강세’와 ‘외래어 및 외국어 사용’은 각각 66회와 60회로 70명의 유학생 대부분이 선택한 응답이었다. 이 두 부분에 해당하는 예를 제시하면 다음 (1)<sup>70)</sup>과 같다.

(1) a. ‘발음, 억양, 강세’의 예

- 발음 시의 강약의 차이(부드러운 한국어, 강한 조선족 한국어)
- 중국어[성조(聲調)]의 영향으로 인한 억양의 차이

b. ‘외래어 및 외국어 사용’의 예

- 한국은 외래어 및 외국어, 특히 영어의 사용이 잦음.
- 주로 전문용어, 나라 이름 등 외래어를 거의 그대로 사용<sup>71)</sup>

69) 부록에 제시된 [문항 5]는 1인당 세 번의 복수 선택이 가능하다. 따라서 <표 15>에서의 합계는 유학생 70명의 3 배인 210회(300%)가 되어야 한다.

70) (1)의 예는 설문 조사 시에 개방형 질문(Open-ended Questions)으로 제시하였다. 응답에 따라 분류를 하고, 그 후에 가장 많은 순서대로 나열하였다. 이와 같은 질문은 뒤의 (2), (3), (4)에도 똑같이 적용하였다.

71) 이에 대하여 조사대상자들이 말한 예는 테이블(table), 카메라(camera), 클릭(click), 케이블(cable), 팬(fan), 트리(tree), 리포터(reporter), 리포트(report), 엘리베이터(elevator), 미팅(meeting), 드라이브

위와 같은 차이점 때문인지 조선족 유학생들은 조선족 한국어와 비슷한 말씨로 북한어 50명(71.4%), 한국어 11명(15.7%), 기타 9명(12.9%)으로 응답하였다. ‘북한어와 비슷하다’고 한 이유는 조선족 한국어의 발음이나 억양이 북한어의 그것과 비슷하며, 북한어는 고유어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그들이 사용하는 단어도 한국어보다는 조선족 한국어와 비슷한 것이 많다고 응답하였다. ‘한국어와 비슷하다’고 한 경우는 영화, TV, 가요 등 한국의 대중문화, 한국(특히 경상도 지방) 출신의 부모 혹은 조부모의 영향 등을 그 예로 들었다. ‘기타’는 모두 어느 쪽과 비슷하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한국어나 북한어와는 다른 조선족 한국어만의 특수한 발음 및 억양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박경래(2002b:73~74)에서도 이와 유사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에 대한 질문은 ‘중국 조선족들이 쓰는 조선족 한국어는 한국과 북한의 말투(말본새)<sup>72)</sup> 중에 어느 쪽과 더 가깝냐’는 것이었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는 ‘한국어’ 7.5%, ‘북한어’ 62.8%, ‘어느 쪽과도 비슷하지 않다’ 20.2%, ‘모르겠다’ 9.4%와 같이 나타났다. 본고의 조사 결과와 그 수치에 대해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조사대상자의 과반수 이상이 ‘북한어’와 비슷하다고 한 점은 비슷한 결과로 볼 수 있겠다.<sup>73)</sup>

<표 15>에서 한국어와 조선족 한국어는 ‘발음, 억양, 강세’와 ‘외래어 및 외국어 사용’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 차이점이 곧 조선족 한국어가 한국어보다는 북한어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게 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들 유학생이 생각하는 한국어와 조선족 한국어에 대한 느낌은 어떠할까? 해당 문항인 [문항 7]<sup>74)</sup>에 대한 결과는 <표 16>과 같다.

(drive), 테마(theme), 백(bag), 헤어스타일(hairstyle), 테이프(tape) 등이 있었다. 외래어 및 외국어가 유학생의 일상생활에서 매우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2) 본고는 ‘말씨’로 질문을 하였고, 박경래(2002b:73~74)에서는 ‘말투(말본새)’로 질문을 하였다. ‘말씨(accent)’는 ‘방언적이며 음성적인 요인’으로 예컨대 광주 말씨, 서울 말씨, 부산 말씨 등을 가리킨다. ‘말투(speech style)’는 가령 일상적/격식적 말투, 빠른/느린 말투처럼 한 개인의 말하는 방식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이 단어들의 의미는 다른 것이지만, 각기 질문지에서의 의미는 거의 같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고와 박경래(2002b)의 조사 결과를 비교하였다.

73) 본고의 조사 결과와 박경래(2002b:73~74)의 조사 결과가 비슷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한국 내 조선족과 중국 연변 조선족의 북한어에 대한 태도가 서로 비슷한 양상을 취한다. 이를 통하여 한국어의 직접적 혹은 간접적 영향권에 상관없이 조선족 한국어는 북한어와 닮았다는 것을 한 번 더 예측할 수 있겠다.

74) 언어 태도에 대하여 사회언어학에서는 [문항 7]과 같은 형용사를 이용하여 각 언어 및 방언 간의 느낌을 알아보는 경우가 많다. [문항 7]의 질문 항목들은 조준학 외(1981:192~193), 이정민(1981:569), 이익섭(1996:607~608), 강희숙(1999:13), 박경래(2002b:64~65) 등에 제시된 형용사 항목을 활용하여 작성한 것이다. 특히 이익섭(1996:607~608)에 나온 9개 항목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시골티가 난다’, ‘유식해 보인다’, ‘정이 간다’를 각각 ‘촌스럽다’, ‘배움직하다’, ‘친근하다’로 바꾸어서 설문을 하였다. 형

<표 16> 한국어와 조선족 한국어의 느낌(유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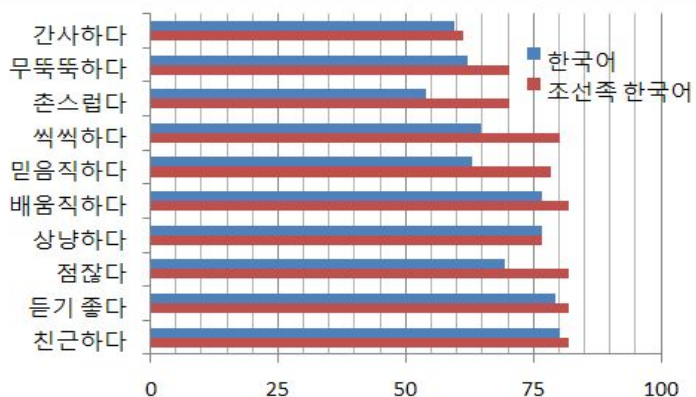
(단위: 명, %)

구 분		한 국 어			조 선 족 한국어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친근하다	남자	16(22.9)	20(28.6)	1(1.4)	18(25.7)	18(25.7)	1(1.4)
	여자	19(27.1)	14(20.0)	-	21(30.0)	10(14.3)	2(2.9)
	소계	35(50.0)	34(48.6)	1(1.4)	39(55.7)	28(40.0)	3(4.3)
듣기 좋다	남자	19(27.1)	13(18.6)	5(7.1)	17(24.3)	20(28.6)	-
	여자	27(38.6)	6(8.6)	-	10(14.3)	18(25.7)	5(7.1)
	소계	46(65.7)	19(27.1)	5(7.1)	27(38.6)	38(54.3)	5(7.1)
접잖다	남자	10(14.3)	20(28.6)	7(10.0)	18(25.7)	18(25.7)	1(1.4)
	여자	23(32.9)	9(12.9)	1(1.4)	10(14.3)	18(25.7)	5(7.1)
	소계	33(47.1)	29(41.4)	8(11.4)	28(40.0)	36(51.4)	6(8.6)
상냥하다	남자	16(22.9)	16(22.9)	5(7.1)	14(20.0)	20(28.6)	3(4.3)
	여자	27(38.6)	6(8.6)	-	7(10.0)	23(32.9)	3(4.3)
	소계	43(61.4)	22(31.4)	5(7.1)	21(30.0)	43(61.4)	6(8.6)
배움직하다	남자	16(22.9)	16(22.9)	5(7.1)	19(27.1)	16(22.9)	2(2.9)
	여자	17(24.3)	15(21.4)	1(1.4)	12(17.1)	16(22.9)	5(7.1)
	소계	33(47.1)	31(44.3)	6(8.6)	31(44.3)	32(45.7)	7(10.0)
믿음직하다	남자	7(10.0)	19(27.1)	11(15.7)	15(21.4)	20(28.6)	2(2.9)
	여자	7(10.0)	17(24.3)	9(12.9)	17(24.3)	16(22.9)	-
	소계	14(20.0)	36(51.4)	20(28.6)	32(45.7)	36(51.4)	2(2.9)
씩씩하다	남자	7(10.0)	21(30.0)	9(12.9)	16(22.9)	20(28.6)	1(1.4)
	여자	7(10.0)	17(24.3)	9(12.9)	23(32.9)	10(14.3)	-
	소계	14(20.0)	38(54.3)	18(25.7)	39(55.7)	30(42.9)	1(1.4)
촌스럽다	남자	2(2.9)	19(27.1)	16(22.9)	10(14.3)	21(30.0)	6(8.6)
	여자	-	7(10.0)	26(37.1)	5(7.1)	10(14.3)	18(25.7)
	소계	2(2.9)	26(37.1)	42(60.0)	15(21.4)	31(44.3)	24(34.3)
무뚝뚝하다	남자	6(8.6)	20(28.6)	11(15.7)	10(14.3)	21(30.0)	6(8.6)
	여자	6(8.6)	5(7.1)	22(31.4)	11(15.7)	9(12.9)	13(18.6)
	소계	12(17.1)	25(35.7)	33(47.1)	21(30.0)	30(42.9)	19(27.1)
간사하다	남자	4(5.7)	21(30.0)	12(17.1)	7(10.0)	17(24.3)	13(18.6)
	여자	12(17.1)	13(18.6)	8(11.4)	1(1.4)	14(20.0)	18(25.7)
	소계	16(22.9)	34(48.6)	20(28.6)	8(11.4)	31(44.3)	31(4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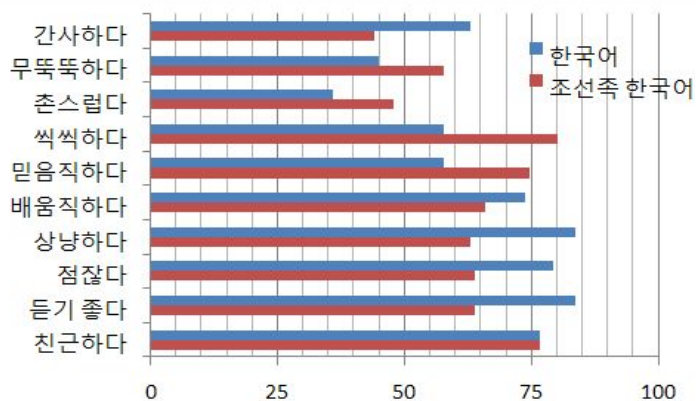
용사에 따라 긍정 및 부정의 의미가 있는데, 이 가운데 무표적인 표현을 선택하여 제시하였다. 설문지의 해당 문항은 조선족의 이해를 돕기 위해 '조선족 한국어'가 아닌 '조선어'로 표기하였다. [부록] 참조.



위의 <표 16>에서 보듯이 하위 항목의 내용에서 크게 긍정적인 느낌과 부정적인 느낌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친근하다, 듣기 좋다, 점잖다, 상냥하다, 배움직하다, 믿음직하다, 씩씩하다’ 등이고, 후자는 ‘촌스럽다, 무뚝뚝하다, 간사하다’ 등이다. 이에 대한 응답의 결과를 한국어와 조선족 한국어로, 또한 남자와 여자로 나누어 그림으로 나타내면 각각 [그림 11], [그림 12]와 같다.<sup>75)</sup>



[그림 11] 한국어와 조선족 한국어의 느낌(유학생-남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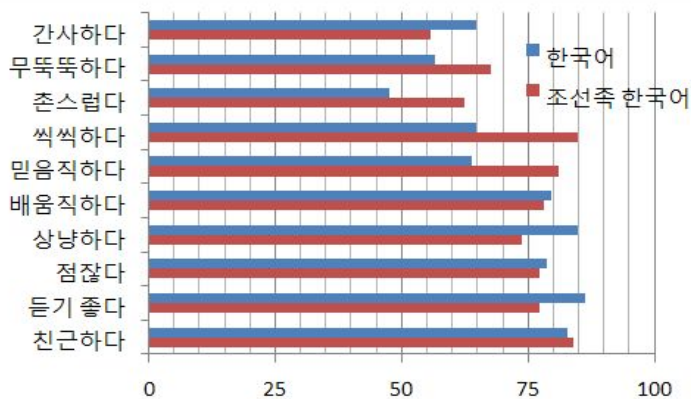
[그림 12] 한국어와 조선족 한국어의 느낌(유학생-여자)

75) [그림 11]과 [그림 12]의 가로축의 수치는 의미 미분 척도(意味 微分 尺度, semantic differential scale)를 이용한 것이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에 각각 3, 2, 1을 곱한 후, 조사대상자 수(남성은 37명, 여성은 33명)로 나누면 평균 수치를 얻게 된다. 이것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값이 가로축의 수치이다.

남자 유학생의 경우 [그림 11]에서 보듯이 ‘친근하다’, ‘듣기 좋다’, ‘상냥하다’ 등과 같은 긍정적인 느낌에서는 두 언어에 대하여 다소 비슷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점잖다’, ‘배움직하다’, ‘믿음직하다’, ‘씩씩하다’ 등의 긍정적인 느낌에서 조선족 한국어의 값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촌스럽다’, ‘무뚝뚝하다’ 등과 같은 부정적인 느낌에서도 조선족 한국어의 값이 더 크다.

여자 유학생의 경우 [그림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친근하다’에서만 두 언어에 대한 느낌이 동일할 뿐, 나머지 느낌에서는 상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긍정적인 느낌에서도 그것은 달라지는데, ‘듣기 좋다’, ‘점잖다’, ‘상냥하다’, ‘배움직하다’ 등에서는 한국어의 값이 더 크지만, 조선족 한국어가 보다 ‘믿음직’하고 ‘씩씩하다’는 태도를 보인다. 부정적인 느낌에서는 ‘촌스럽다’, ‘무뚝뚝하다’에서는 조선족 한국어의 값이 더 크지만, ‘간사하다’에서는 한국어의 값이 더 크게 나타났다.

그렇다면 유학생 전체의 느낌은 어떠할까? 이를 그림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3] 한국어와 조선족 한국어의 느낌(유학생-전체)

한국어는 ‘듣기 좋다’, ‘상냥하다’에서 조선족 한국어보다 더 높은 점수를 획득하고 있지만, ‘간사하다’에서도 조선족 한국어보다 점수가 높았다. 조선족 한국어는 ‘믿음직하다’, ‘씩씩하다’ 등에서 한국어에 비해 그 값이 더 큰 반면에, ‘촌스럽다’, ‘무뚝뚝하다’에서도 그 값은 한국어보다 더 컸다. 나머지 항목에 대한 느낌은 다소 비슷하였다.

### 3.2.2. 결혼이민자의 경우

결혼이민자 조사대상자는 42명이다. 이들의 체류 지역은 앞서 밝혔던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 22명, 전남 20명이다.<sup>76)</sup>

먼저 유학생과 마찬가지로 한국어와 조선족 한국어의 비슷한 정도를 물어보았다. 해당 질문인 설문 4에 대한 응답의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7> 한국어와 조선족 한국어의 비슷한 정도(결혼이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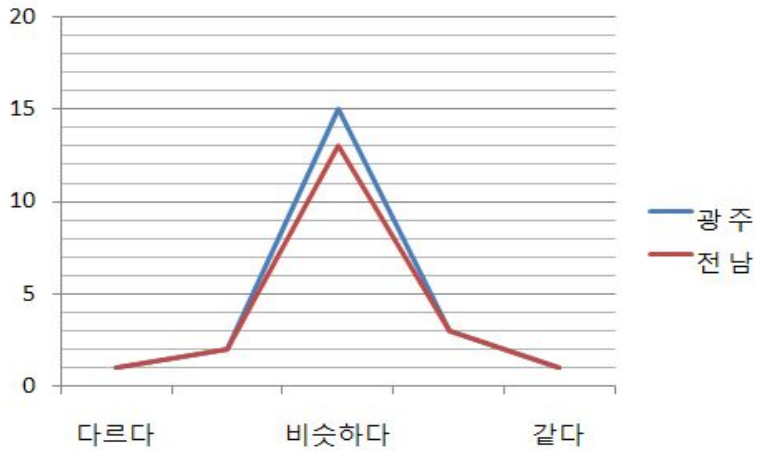
(단위: 명, %)

구 분	다르다		비슷하다		같다	합 계
	①	②	③	④	⑤	
광 주	1(2.4)	2(4.8)	15(35.7)	3(7.1)	1(2.4)	22(52.4)
전 남	1(2.4)	2(4.8)	13(31.0)	3(7.1)	1(2.4)	20(47.6)
합 계	2(4.8)	4(9.5)	28(66.7)	6(14.2)	2(4.8)	42(100.0)

여기에서 보듯이 한국어와 조선족 한국어가 ‘비슷하다’라고 선택한 응답이 28명(66.7%)로 가장 많았다. ‘다르거나 다소 다르다’는 응답은 6명, ‘같거나 다소 같다’는 응답은 8명으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따라서 결혼이민자의 경우 유학생과 마찬가지로 한국어와 조선족 한국어의 비슷한 정도에서 ‘비슷하다’라는 의견을 대체적으로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 분포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 14]와 같다.

76) 유학생의 경우 문항별로 성별에 따라 분석하였다. 그러나 결혼이민자의 경우 전부 여성이라서 체류 지역으로 그 응답 결과를 분별하였다.

전남 지역에서는 고흥에서 9명, 담양에서 11명이 설문에 응하였다. 함평에서도 3명의 설문지를 회수하였지만, 분석이 불가능한 것이었다. 이 외의 다른 전남 시·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같은 기관에서는 설문에 대한 응답을 거부하였기에 보다 많은 설문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림 14] 한국어와 조선족 한국어의 비슷한 정도(결혼이민자)

여기에서 두 언어가 ‘같다’고 한 조사대상자는 2명(4.8%)이었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40명의 조사대상자 중에서 두 언어가 조금이라도 같지 않다고 응답한 셈이다. 그렇다면 어느 점을 다르게 느끼는지 알아보기 위한 설문 문항 5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 18>과 같다.

<표 18> 한국어와 조선족 한국어의 차이점 순위(결혼이민자)

(단위: 명, %)

구 분		1순위	2순위	3순위
한글 및 한자 표 기	광 주	-	1(2.4)	5(11.9)
	전 남	-	3(7.1)	5(11.9)
	소 계	-	4(9.5)	10(23.8)
발음, 억양, 강세	광 주	3(7.1)	18(42.9)	-
	전 남	11(26.2)	6(14.3)	1(2.4)
	소 계	14(33.3)	24(57.1)	1(2.4)
외래어 및 외국어 사 용	광 주	19(45.2)	1(2.4)	-
	전 남	9(21.4)	4(9.5)	2(4.8)
	소 계	28(66.7)	5(11.9)	2(4.8)
뜻이 다른 한자어	광 주	-	-	17(40.5)
	전 남	-	2(4.8)	6(14.3)
	소 계	-	2(4.8)	23(54.8)
문법 및 어순	광 주	-	2(4.8)	-
	전 남	-	3(7.1)	2(4.8)
	소 계	-	5(11.9)	2(4.8)
기 타	광 주	-	-	-
	전 남	-	-	-
	소 계	-	-	-
무 응 답	광 주	-	-	-
	전 남	-	2(4.8)	4(9.5)
	소 계	-	2(4.8)	4(9.5)
합 계		42(100.0)	42(100.0)	42(100.0)

<표 18>을 살펴보면 결혼이민자의 한국어와 조선족 한국어에 대한 차이점이 무엇인지 그 순위대로 알 수 있다. 광주 결혼이민자가 응답한 차이점은 각각 ‘외래어 및 외국어 사용’이 45.2%, ‘발음, 억양, 강세’가 42.9%, ‘뜻이 다른 한자어’가 40.5%로 나타났다. 전남 결혼이민자의 경우에는 ‘발음, 억양, 강세’가 각각 26.2%, 14.3%로 1순위와 2순위를 기록하였으며, ‘뜻이 다른 한자어’가 14.3%로 3순위에 해당하였다. 지역에 따라 1, 2순위는 바뀌었지만, 서로 같은 항목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와 전남 지역을 합한 총 결혼이민자 조사대상자가 응답한 두 언어의 차이점은 그 차례대로 ‘외래어 및 외국어 사용’이 66.7%, ‘발음, 억양, 강세’가 57.1%, ‘뜻이 다른 한자어’가 54.8%였다. [설문 5]의 응답 결과를 두 지역의 조사대상자를 합하고, 순위가 아닌 빈도수로 나타내면 다음 <표 19>와 같다.

<표 19> 한국어와 조선족 한국어의 차이점 빈도(결혼이민자)<sup>77)</sup>  
(단위: 빈도수, %)

구 분	빈 도
한글 및 한자 표기	14(33.3)
발음, 억양, 강세	39(92.9)
외래어 및 외국어 사용	35(83.3)
뜻이 다른 한자어	7(59.5)
문법 및 어순	-
기 타	6(14.3)
무 응 답	6(14.3)
합 계	126(300.0)

위의 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발음, 억양, 강세’와 ‘외래어 및 외국어 사용’이 각각 39회와 35회로 결혼이민자 대부분이 선택한 응답이었다.<sup>78)</sup> 이로써 대다수의 결혼이민자들은 이 부분에서 차이가 크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에 해당하는 예를 제시하면 다음 (2)와 같다.

- (2) a. ‘발음, 억양, 강세’의 예
- 발음 시의 강약의 차이(부드러운 한국어, 강한 조선족 한국어)
  - 중국어(성조(聲調))의 영향으로 인한 억양의 차이
- b. ‘외래어 및 외국어 사용’의 예
- 조선족은 주로 순우리말을, 한국인은 외국어를 섞어서 사용.
  - 음식, 식품, 화장품 명칭 등 외래어를 거의 그대로 사용<sup>79)</sup>

77) 1인당 세 번의 복수 선택이 가능하다. 따라서 <표 19>에서의 합계는 결혼이민자 42명의 3배인 126회(300%)가 되어야 한다.

78) 이 응답 결과는 앞의 유학생의 응답 결과인 <표 15>와 비교할 수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결혼이민자도 유학생과 마찬가지로 ‘발음, 억양, 강세’와 ‘외래어 및 외국어 사용’이 압도적인 빈도를 차지하고 있다.

위와 같은 차이점 때문인지 결혼이민자들도 조선족 한국어와 비슷한 말씨로 북한어 34명(81.0%), 한국어 4명(9.5%), 기타 4명(9.5%)로 응답하였다.<sup>80)</sup> 북한어와 비슷하다고 한 이유는 유학생과 약간 차이가 있었는데, 어린 시절 조선학교<sup>81)</sup>에서 조선족 한국어를 북한어 위주로 배웠기 때문이고, 또한 해방(1945년 8월) 후 북한 사람들의 유입이 많아서 자연스럽게 언어적으로 동화되었다고 응답하였다. 한국어와 비슷하다는 이유는 중국어 성조의 영향으로 인해 경상도 방언과 비슷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기타’는 어느 쪽과 비슷하지 않다고 응답하기도 하였고, 한국과 북한의 말투가 같이 쓰인다고 응답하였다.

<표 19>에서 한국어와 조선족 한국어는 ‘발음, 억양, 강세’와 ‘외래어 및 외국어 사용’에서 그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는 조선족 한국어가 한국어의 말씨보다는 북한어의 그것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 이유가 될 수 있겠다. 한국어와 조선족 한국어의 비슷한 정도에서는 <표 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결혼이민자의 66.7%가 ‘비슷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렇다면 결혼이민자가 생각하는 한국어와 조선족 한국어의 느낌은 어떠할까? 이에 대한 응답의 결과는 <표 20>과 같다.

79) ‘외래어 및 외국어 사용’에서 유학생은 주로 학교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전문 용어, 나라 이름 등에서 다른 점을 예로 들었었다. 그러나 결혼이민자의 경우에는 좀 다른 예가 많았다. 이를 나열해보면 프로그램, 채널, 리모컨, 헤어숍, 화장품 명칭(스킨, 로션, (폼)클렌징, 마스크라 등), 다마네기, 이빠이 등 주로 주변의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

80) 앞의 유학생의 경우에서 언급하였지만, 박경래(2002b:73~74)에서도 이와 유사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는 ‘한국어’ 7.5%, ‘북한어’ 62.8%, ‘어느 쪽과도 비슷하지 않다’ 20.2%, ‘모르겠다’ 9.4%로 나타났다. 본고의 조사 결과와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결혼이민자 대부분의 응답이 ‘북한어’와 비슷하다고 한 점은 비교적 공통점이 크다고 볼 수 있겠다.

81) 여기에서의 ‘조선학교’는 중국 조선족들이 다니는 민족학교로서, 일반 중국인들의 학교인 ‘한족학교’와 다른 교육기관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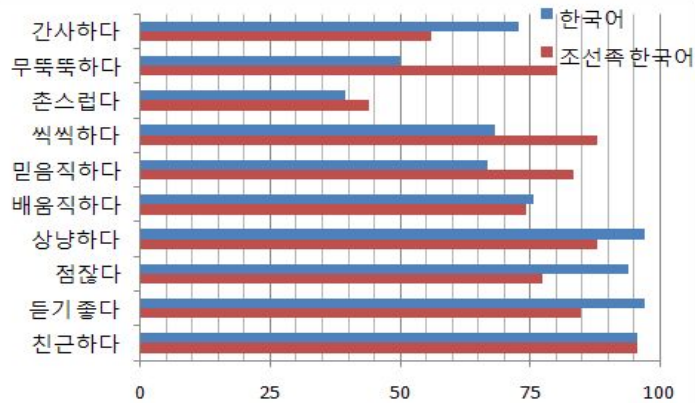
<표 20> 한국어와 조선족 한국어의 느낌(결혼이민자)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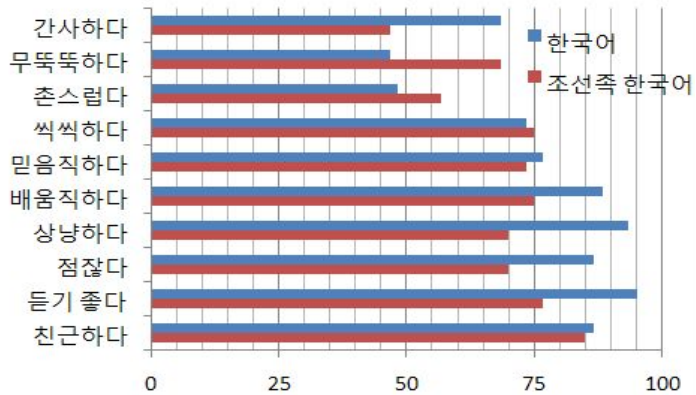
구 분		한 국 어			조 선 족 한국어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친근하다	광주	19(45.2)	3(7.1)	-	19(45.2)	3(7.1)	-
	전남	13(31.0)	6(14.3)	1(2.4)	12(28.6)	7(16.7)	1(2.4)
	소계	32(76.2)	9(21.4)	1(2.4)	31(73.8)	10(23.8)	1(2.4)
듣기 좋다	광주	20(47.6)	2(4.8)	-	13(31.0)	8(19.0)	1(2.4)
	전남	17(40.5)	3(7.1)	-	9(21.4)	8(19.0)	3(7.1)
	소계	37(88.1)	5(11.9)	-	22(52.4)	16(38.1)	4(9.5)
jem잘다	광주	18(42.9)	4(9.5)	-	8(19.0)	13(31.0)	1(2.4)
	전남	13(31.0)	6(14.3)	1(2.4)	6(14.3)	10(23.8)	4(9.5)
	소계	31(73.8)	10(23.8)	1(2.4)	14(33.3)	23(54.8)	5(11.9)
상냥하다	광주	20(47.6)	2(4.8)	-	14(35.7)	6(14.3)	1(2.4)
	전남	16(38.1)	4(9.5)	-	6(14.3)	10(23.8)	4(9.5)
	소계	36(85.7)	6(14.3)	-	21(50.0)	16(38.1)	5(11.9)
배움직하다	광주	7(16.7)	14(33.3)	1(2.4)	6(14.3)	15(35.7)	1(2.4)
	전남	13(31.0)	7(16.7)	-	6(14.3)	13(31.0)	1(2.4)
	소계	20(47.6)	21(50.0)	1(2.4)	12(28.6)	28(66.7)	1(4.8)
믿음직하다	광주	2(4.8)	18(42.9)	2(4.8)	12(28.6)	9(21.4)	2(2.4)
	전남	8(19.0)	10(23.8)	2(4.8)	5(11.9)	14(33.3)	1(2.4)
	소계	10(23.8)	28(66.7)	4(9.5)	17(40.5)	23(54.8)	2(4.8)
씩씩하다	광주	2(4.8)	19(45.2)	1(2.4)	14(33.3)	8(19.0)	-
	전남	6(14.3)	12(28.6)	2(4.8)	6(14.3)	13(31.0)	1(2.4)
	소계	8(19.0)	31(73.8)	3(7.1)	20(47.6)	21(50.0)	1(2.4)
흔스럽다	광주	1(2.4)	2(4.8)	19(45.2)	2(4.8)	3(7.1)	17(40.5)
	전남	1(2.4)	7(16.7)	12(28.6)	3(7.1)	8(19.0)	9(21.4)
	소계	2(4.8)	9(21.4)	31(73.8)	5(11.9)	11(26.2)	26(61.9)
무뚝뚝하다	광주	2(4.8)	7(16.7)	13(31.0)	12(28.6)	7(16.7)	3(7.1)
	전남	1(2.4)	6(14.3)	13(31.0)	5(11.9)	11(26.2)	4(9.5)
	소계	3(7.1)	13(31.0)	26(61.9)	17(40.5)	18(42.9)	7(16.7)
간사하다	광주	4(9.5)	18(42.9)	-	-	15(35.7)	7(16.7)
	전남	4(9.5)	13(31.0)	3(7.1)	-	8(19.0)	12(28.6)
	소계	8(19.0)	31(73.8)	3(7.1)	-	23(54.8)	19(45.2)



<표 20>을 결혼이민자의 체류 지역에 따라 분류를 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 [그림 15], [그림 16]과 같다.<sup>82)</sup>



[그림 15] 한국어와 조선족 한국어의 느낌(결혼이민자-광주)



[그림 16] 한국어와 조선족 한국어의 느낌(결혼이민자-전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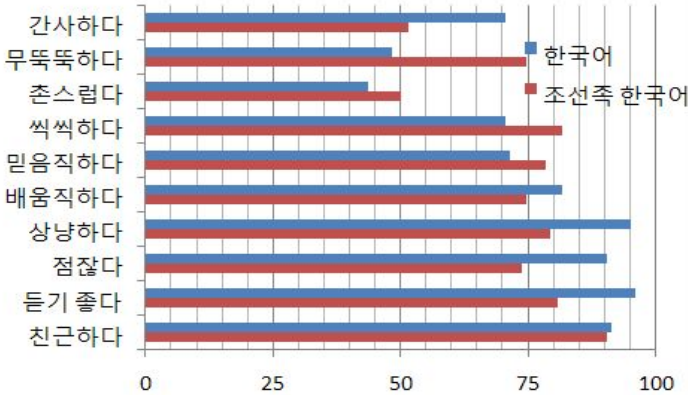
[그림 15]를 보면 광주 지역 결혼이민자는 ‘친근하다’에서 두 언어에 대하여 똑같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한국어에 대해 ‘듣기 좋다’, ‘점잖다’, ‘상냥하다’에서 조선족

82) [그림 15]와 [그림 16]은 앞의 [그림 11], [그림 12]와 마찬가지로 가로축의 수치는 의미 미분 척도를 이용한 것이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에 각각 3, 2, 1을 곱한 후, 조사대상자 수(광주는 22명, 전남은 20명)로 나누면 평균 수치를 얻게 된다. 이것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값이 가로축의 수치이다. 그 수치가 100에 가까울수록 ‘그렇다’라는 의미가 된다.

한국어보다 다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믿음직하다’, ‘씩씩하다’ 등에서는 조선족 한국어가 더 ‘그렇다’에 가까운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무뚝뚝하다’에서는 조선족 한국어가 한국어보다 훨씬 그러한 느낌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간사하다’에 대한 느낌은 한국어가 더 ‘그렇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그림 16]에서 보듯이 전남 지역 결혼이민자의 경우 ‘친근하다’, ‘믿음직하다’, ‘씩씩하다’ 등에 대한 느낌만 비슷할 뿐, 나머지 느낌에서는 상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듣기 좋다’, ‘점잖다’, ‘상냥하다’ 등에서는 한국어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광주 지역의 조사대상자와 마찬가지로 ‘간사하다’에서는 한국어가 더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촌스럽다’, ‘무뚝뚝하다’에서는 한국어보다 조선족 한국어가 더 그렇다고 느끼고 있다.

그렇다면 두 언어에 대한 결혼이민자 전체의 느낌은 어떠할까?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7] 한국어와 조선족 한국어의 느낌(결혼이민자-전체)

여기에서 보듯이 결혼이민자에게 한국어는 ‘듣기 좋다’, ‘점잖다’, ‘상냥하다’, ‘배움직하다’ 등에서 조선족 한국어보다 더 높은 점수를 획득하고 있지만, ‘간사하다’에서도 그 점수가 더 높다. 조선족 한국어는 ‘믿음직하다’, ‘씩씩하다’ 등에서 그 점수가 더 큰 반면에, ‘촌스럽다’와 ‘무뚝뚝하다’에서도 그 값은 한국어보다 더 컸다. 나머지 항목에 대한 느낌은 다소 비슷하였다.

이와 같이 결혼이민자의 두 언어에 대한 느낌을 알아보았다. 두 언어의 각 항목에 대한 느낌이 어떠한가를 앞서 제시한 유학생의 경우와 비교를 해 보았다. 그 결

과를 비슷한 정도에 따라 제시하면 다음 <표 21>과 같다.

<표 21> 한국어와 조선족 한국어의 느낌(전체 조사대상자)<sup>8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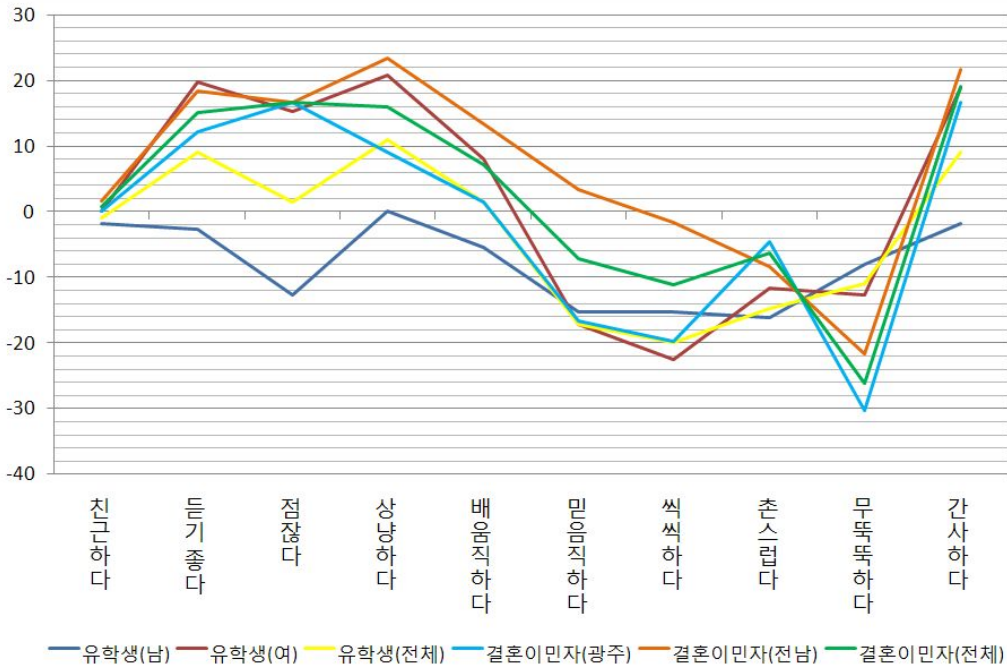
(범례: 한국어(○), 조선족 한국어(●), 비슷함(◐))

구 분	유 학 생		결 혼 이 민 자	
	남 자	여 자	광 주	전 남
친근하다	◐	◐	◐	◐
듣기 좋다	◐	○	○	○
짐작다	●	○	○	○
상냥하다	◐	○○	◐	○○
배움직하다	◐	◐	◐	○
믿음직하다	●	●	●	◐
씩씩하다	●	●●	●	◐
촌스럽다	●	●	◐	◐
무뚝뚝하다	◐	●	●●●	●●
간사하다	◐	○	○	○○

<표 21>을 살펴보면 ‘친근하다’라는 느낌의 항목에서는 전부 같은 응답을 보이고 있다. ‘듣기 좋다’, ‘짐작다’, ‘상냥하다’, ‘배움직하다’, ‘간사하다’에서는 주로 한국어에 ‘그렇다’라는 느낌의 응답을 보인다. 반면에 ‘믿음직하다’, ‘씩씩하다’, ‘촌스럽다’, ‘무뚝뚝하다’에서는 조선족 한국어에 그 느낌이 강하였다. 이를 미루어볼 때 조선족들이 생각하는 한국어는 비교적 가벼운 느낌을 가지고 있으며, 조선족 한국어는 투박하거나 역센 느낌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위와 같은 응답의 결과는 앞의 [설문 5]에서 두 언어의 차이점과 연관시킬 수 있다. ‘한국어는 부드러우나 조선족 한국어는 강하다’고 응답한 사례를 통하여 위와 같은 결과가 두 언어에 대한 그들의 느낌을 대변한다 하겠다. <표 21>에 제시된 결과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83) <표 21>에서는 응답의 횟수나 빈도 대신에 각 항목에 대하여 그 느낌이 더 ‘그렇다’라고 생각하는지를 제시하였다. 앞에서 의미 미분 척도를 통해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값을 기준으로, 두 언어 사이에 그 차이가 10점 이하는 비슷함, 10점 초과는 점수가 높은 해당 언어의 표식 1번, 11점 이상부터는 10점보다 해당 언어의 표식을 1번 추가함으로 분류하였다.



[그림 18] 한국어와 조선족 한국어의 느낌(전체 조사대상자)<sup>84)</sup>

위의 그림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두 언어에 대한 느낌에서 남자 유학생은 ‘믿음직하다’, ‘씩씩하다’, ‘촌스럽다’, ‘무뚝뚝하다’ 등에 해당하는 응답에서만 다른 조사대상자들과 서로 비슷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그 외의 항목에서는 모두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하면 여자 유학생과 결혼이민자, 즉 여자 조사대상자들은 서로 거의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눈 여겨 볼 것은 이들의 성별이다. 남자 유학생은 자신의 모어인 조선족 한국어에 ‘숨은 위세(covert prestige)’를 부여하고 있다. 그 외의 여자 조사대상자들은 중국이 아닌 한국의 표준형이라 할 수 있는 한국어에 따르려고 하는 ‘위세(威勢, prestige)’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sup>85)</sup>

84) [그림 18]에서는 앞서 살펴본 의미 미분 척도로 환산된 점수를 기준으로 자료를 정리하였다. <표 21>은 각 점수의 차이에 따라 제시를 한 것이나, [그림 18]은 두 언어에 대한 점수를 각각의 항목별로 뺄셈을 하여 제시한 것이다. 가령 남자 유학생의 경우 ‘친근하다’에 대한 점수는 한국어가 80.2점, 조선족 한국어가 82.0점이다. 여기서 ‘한국어의 값 - 조선족 한국어의 값’은 ‘-1.8점’이 나온다. 이와 같이 각 항목별로 뺄셈을 한 결과를 조사대상자별로 구분하여 제시한 것이 [그림 18]이다. 즉 세로축의 ‘양수(陽數)’ 부분은 한국어가 ‘그렇다’에, ‘음수(陰數)’ 부분은 조선족 한국어가 ‘그렇다’에 해당하는 것이다.

85) Fischer(1958), Trudgill(1974), Wolfram(1969), Sankoff(1974) 등에서는 각각 미국 New England,

### 3.3. 조선족의 언어 태도와 언어 정책의 방향

앞의 3.2.에서는 조사대상자들의 언어 태도를 제시하였다. 이들은 한국어와 조선족 한국어가 비슷하다고 생각하지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 가운데서도 ‘발음, 억양, 강세’, ‘외국어 및 외국어 사용’ 등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또한 두 언어에 대한 느낌에서 한국어는 비교적 부드러운 느낌을 가지고 있으며, 조선족 한국어는 보다 역세거나 강한 느낌을 가지고 있었다.

본 장에서는 조선족 조사대상자들이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겪고 있는 언어적 어려움이 무엇인지 알아보겠다. 또한 이들의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 및 항목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언어 정책의 방향을 짚어보겠다.

#### 3.3.1. 유학생의 경우

유학생들은 ‘한국에서 살면서 한국인과 의사소통을 할 때 어려움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있다’가 37명(52.9%), ‘없다’가 19명(27.1%), ‘잘 모르겠다’가 14명(20.0%)으로 응답하였다. 의사소통 시에 어려운 점이 ‘있다’에 그 비중이 더 큼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어떤 점이 어려운 것인가에 대한 그 응답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영국 Norwich, 미국 Detroit, 캐나다 Montreal에서 남성과 여성의 언어 사용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성별에 따라 표준형(standard variant)의 선호 경향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남성보다 여성이 표준형(혹은 표준어)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또한 Trudgill(1983a, 1983b), Fasold(1990) 등에서는 남성들이 사투리에 더 높은 점수를 매기고 있으며, 오히려 사투리 사용을 더 바람직한 행위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숨은 위세(covert prestige)’ 또는 ‘은밀한 권위’라 한다. 본고의 조사 결과가 표준형과 비표준형을 조사한 것은 아니지만, 한국에서 살고 있는 조사대상자들에게 한국어가 표준형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한다면 위의 연구들과 상통하는 결과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성별에 따른 표준어 선택에 대한 것은 이익섭(1994:116~123)을 참고할 것.

<표 22> 의사소통 시 어려운 점 순위(유학생)<sup>86)</sup>

(단위: 명, %)

구 분		1순위	2순위	3순위
한글 및 한자 표기	남 자	2(2.9)	1(1.4)	5(7.1)
	여 자	-	3(4.3)	3(4.3)
	소 계	2(2.9)	4(5.7)	8(11.4)
발음, 억양, 강세	남 자	9(12.9)	14(20.0)	1(1.4)
	여 자	13(18.6)	6(8.6)	3(4.3)
	소 계	22(31.4)	20(28.6)	4(5.7)
외래어 및 외국어 사용	남 자	14(20.0)	6(8.6)	1(1.4)
	여 자	10(14.3)	8(11.4)	3(4.3)
	소 계	24(34.3)	14(20.0)	4(5.7)
뜻이 다른 한자어	남 자	-	1(1.4)	6(8.6)
	여 자	-	2(2.9)	5(7.1)
	소 계	-	3(4.3)	11(15.7)
문법 및 어순	남 자	1(1.4)	3(4.3)	-
	여 자	-	1(1.4)	2(2.9)
	소 계	1(1.4)	4(5.7)	2(2.9)
기 타	남 자	-	-	5(7.1)
	여 자	1(1.4)	2(2.9)	1(1.4)
	소 계	1(1.4)	2(2.9)	6(8.6)
무 응 답	남 자	11(15.7)	12(17.1)	19(27.1)
	여 자	9(12.9)	11(15.7)	16(22.9)
	소 계	20(28.6)	23(32.9)	35(50.0)
합 계		70(100.0)	70(100.0)	70(100.0)

남자 유학생이 생각하는 의사소통 시 어려운 점은 그 순서대로 ‘외래어 및 외국어 사용’ 20.0%, ‘발음, 억양, 강세’ 20.0%, ‘뜻이 다른 한자어’ 8.6%로 나타났다. 여자 유학생은 그 순서대로 ‘발음, 억양, 강세’ 18.6%, ‘외래어 및 외국어 사용’ 11.4%, ‘뜻이 다른 한자어’ 7.1%로 나타났다. 유학생 전체에서는 ‘외래어 및 외국어 사용’ 34.3%, ‘발음, 억양, 강세’ 28.6%, ‘한글 및 한자 표기’ 15.7%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를 남녀를 합하고, 순위가 아닌 빈도수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86) <표 22>에서는 의사소통 시에 어려운 점이 ‘없다’라고 응답한 조사대상자들과 ‘무응답’은 모두 ‘무응답’으로 처리하였다.

<표 23> 의사소통 시 어려운 점 빈도(유학생)<sup>87)</sup>

(단위: 빈도수, %)

구 분	빈 도
한글 및 한자 표기	14(20.0)
발음, 억양, 강세	46(65.7)
외래어 및 외국어 사용	42(60.0)
뜻이 다른 한자어	14(20.0)
문법 및 어순	7(10.0)
기 타	9(12.9)
무 응 답	78(111.4)
합 계	210(300.0)

여기에서 보듯이 ‘발음, 억양, 강세’와 ‘외래어 및 외국어 사용’은 각각 46회와 42회로 의사소통 시 어려운 점이 ‘없다’고 응답한 유학생을 제외한 51명 대부분이 선택한 응답이었다. 이는 앞의 <표 15>에서 살펴본 한국어와 조선족 한국어의 차이 점과 비교해 봤을 때 거의 비슷한 응답을 보여준다. 이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예를 제시하면 다음 (3)과 같다.

(3) a. ‘발음, 억양, 강세’의 예

- 억양의 차이
- 조선족 한국어와는 다른 전라도 사투리

b. ‘외래어 및 외국어 사용’의 예

- 일본어의 잔재를 많이 사용(메가네(안경), 빠테리(battery) 등)<sup>88)</sup>
- 수업 시 전문 용어 및 외국어 사용<sup>89)</sup>

87) <표 23>의 집계는 1인당 세 번의 복수 선택이 가능하다. 따라서 여기에서의 합계는 유학생 70명의 3배인 210회(300%)가 되어야 한다.

88) 박영순(1998:21~24)에서는 속된 말, 불필요한 외래어, 틀린 말 등을 대상으로 국어연구원에서 각 분야별 국어순화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거의 모든 부분의 기술 전문 용어가 ‘일본어’로 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과 같은 고등교육기관에서 재학 중인 유학생들에게는 이 부분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또한 새롭게 들어오는 외국어에 대하여 적절한 우리말로 바꾸어 보급하는 일, 세계의 고유명사들을 어떻게 한국에서 발음하고 적을 것인가에 대한 일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결정하여 보급시키는 일 등을 신속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박영순, 1998:21)고 하였다. 한국 내에서도 이런 점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한국인 및 해외 동포는 물론이거니와 더 나아가 다른 외국인에게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유학생들은 이와 같이 의사소통 시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 따라서 보다 원활한 한국에서의 생활을 위하여 조선족 한국어와는 다른 한국어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질문을 하였다. 이에 대한 응답 결과는 ‘필요하다’가 48명(68.6%), ‘필요하지 않다’가 12명(17.1%), ‘잘 모르겠다’가 10명(14.3%)으로 나타났다. 3명 중 2명 정도가 한국어 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했는데, 이에 대해 어떤 부분을 공부하고 싶은지에 대한 응답의 결과는 다음 <표 24>와 [그림 19]와 같다.<sup>90)</sup>

<표 24> 한국어 교육 시에 공부하고 싶은 점(유학생)<sup>91)</sup>

(단위: 빈도수, %)

구 분	유 학 생		합 계
	남 자	여 자	
한글 및 한자 표기	9(12.9)	6(8.6)	15(21.4)
발음, 억양, 강세	26(37.1)	30(42.9)	56(80.0)
외래어 및 외국어	26(37.1)	22(31.4)	48(68.6)
뜻이 다른 한자어	8(11.4)	9(12.9)	17(24.3)
문법 및 어순	8(11.4)	6(8.6)	14(20.0)
기 타	3(4.3)	1(1.4)	4(5.7)
무 응 답	31(44.3)	25(35.7)	56(80.0)
합 계	111(158.6)	99(141.4)	210(300.0)

89) 외래어 및 외국어의 사용으로 인해 조선족 유학생이 겪는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필자의 지인인 정 보통신계열의 조선족 유학생(김○○, 남자, 24세)이 겪은 일을 들어보겠다.

(김○○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강의 시간에 ‘스페이스 바’를 치라는 말을 듣고 가만히 있었다.)

담당강사: 왜 ‘스페이스 바’를 치지 않는 거지?

김 ○ ○: 아, 저는 그 ‘스페이스 바’가 뭔지 모르는데요.

담당강사: 너 조선족이잖아. 내가 알고 있는데? 한국말 잘하면서 왜 모른다고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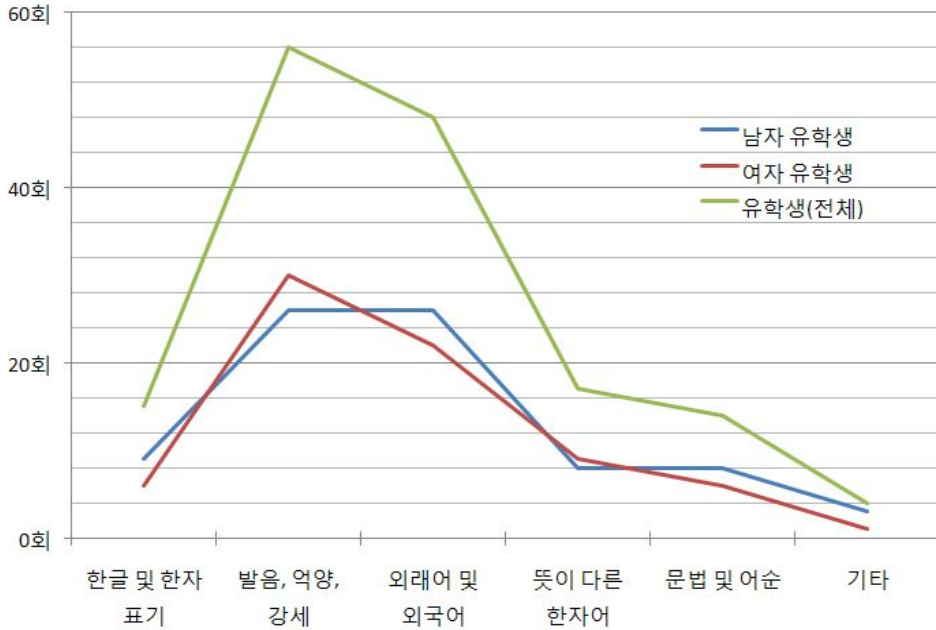
김 ○ ○: 저 정말 ‘스페이스 바’가 뭔지 모르는데요.

위와 같은 대화가 몇 번 오고간 끝에, 자신에게 대항한다고 느끼고 화가 난 담당강사는 유학생에게 강의실을 나갈 것을 명령했다. 그 학생은 탄식하며 강의실을 나와야만 했었다. 한국말을 아무리 잘하더라도 그에게 ‘스페이스 바(space bar)’는 한국말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사례는 필자 주변의 유학생들에게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90) 한국어 교육 시에 공부하고 싶은 것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순위가 아닌 복수 선택으로 응답을 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표 24>의 집계는 1인당 3번의 선택이 가능하다. 따라서 여기에서의 합계는 유학생 70명의 3배인 210회(300%)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한국어 교육 시 필요한 점이 하나도 없거나 공란으로 된 응답은 모두 ‘무응답’으로 처리하였다. [그림 19]는 ‘무응답’을 제외하고 제시한 것이다.

91) <표 24>의 집계는 1인당 3번의 복수 선택이 가능하다. 따라서 여기에서의 합계는 유학생 70명의 3배인 210회(300%)가 되어야 한다.





[그림 19] 한국어 교육 시 공부하고 싶은 점(유학생)<sup>92)</sup>

위의 표와 그림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한국어 교육 시 공부하고 싶은 점에 대하여 ‘발음, 억양, 강세’, ‘외래어 및 외국어’에 관한 부분을 공부하고 싶다고 한 응답이 다른 부분보다 많았다. 이는 앞서 제시한 한국어와 조선족 한국어와의 차이점, 한국에서 의사소통 시 어려운 점 등에서 1·2위로 드러난 점과 같다. 따라서 유학생들은 이들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나 어렵다고 느끼는 부분에서 그들의 부족함을 채우고 싶은 의사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조선족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육에서는 ‘발음, 억양, 강세’ 및 ‘외래어 및 외국어’에 관한 것을 우선적으로 가르쳐야 할 것이다. ‘발음, 억양, 강세’는 음성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보급과 교육, 특히 어떤 말씨<sup>93)</sup>를 기준으로 할 것인가가 중요한 사안이 된다. 가령 어느 한 조선족 유학생이 서울에 소재한 대학으로 진학하여 어느 기간 동안 한국어, 특히 서울 말씨에 익숙해졌다고 하자. 이 학생이 다른 지방으로 방문하거나 학교에 진학을 하게 된다면 그는 또 다른 한국어에 적응해야 할 상태

92) [그림 19]는 <표 24>에서 ‘무응답’을 제외하고 작성하였다.

93) 여기에서 ‘어떤 말씨’란 현재 한국어의 표준형인 서울 말씨인지, 아니면 다른 지방의 말씨인지를 가리킨다. 이들 조선족 유학생이 배울 ‘말씨’가 어느 하나로 한정될 수 없음은 분명한 일이라고 할 수 있기에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다.

에 놓이게 된다. 물론 방언에 따라 다른 변이형을 가지고 있지만, 조선족들의 경우 같은 말을 사용하는 같은 민족임에도 그들 특유의 ‘발음, 억양, 강세’에 대한 것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조선족뿐만 아니라 다른 해외 동포들과 함께 시행할 수 있는 표준 발음법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

‘외래어 및 외국어’에 대한 정책도 논의가 필요하다. 최윤갑(1994:317~319)에서는 외래어와 관련하여 한국, 중국(조선족), 북한의 예를 들고 있다. 크게 ‘원어 기원 기준에 따른 차이’와 ‘한국에서만 쓰는 외래어에 의한 차이’가 그것이다. 전자는 외래어의 기원을 한국은 영어에, 중국과 북한은 러시아어에 두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뜻이 같은 외래어를 쓰는 경우에도 한국과 중국 및 북한에서는 차이가 나타난다. 후자는 중국과 북한은 우리말을 위주로 사용하지만, 한국은 이에 대응하는 우리말 뿐만 아니라 외래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들의 예는 다음과 같다.

<표 25> 외래어와 관련한 한국, 중국, 북한의 차이<sup>94)</sup>

차이점	한 국	중국, 북한	비 고
부동한 원어기준에 따른 차이	그룹(영)	그루빠(러)	영: 영어 러: 러시아어 독: 독일어
	라디오(영)	라지오(러)	
	벤젠(영)	벤졸(러)	
	트랙터(영)	뜨락또르(러)	
	에너지(영)	에네르기(독)	
한국에서만 쓰이는 외래어에 의한 차이	박스	상자, 궤	
	캐스트	배역	
	서커스	공예, 곡마, 교예	
	챔피언	우승자, 선수	
	캔디	당과	

이외에도 한국어에는 많은 외래어 및 외국어가 있다. 수업 시 자신의 전공에 관한 전문 용어를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전에 이와 같은 일상 생활에서 접할

94) 최윤갑(1994:317~319)에서는 “한 민족어에 일정한 외래어가 있기는 불가피한 일이다. 그러나 지금 한국에서는 외래어를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 이는 결국 중국의 조선족과 북한에게는 생소한 감을 준다.”라고 하였다. 이때 당시와 비교하여 15여 년이 흐른 지금, 한국은 외래어 및 외국어가 일상 생활에서 너무 많이 쓰이고 있다. <표 25>는 최윤갑(1994:318~319)에 제시된 예를 몇 개만 발췌한 것이다.

수 있는 외래어 및 외국어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 인터뷰를 실시한 조선족 유학생의 말을 인용해보면 다음과 같다.

이래저래 우리 조선족들은 힘들어요. 수업에 배우는 것은 공부하면 되지만, 나머지 말(일상에서 사용되는 말)들은 영어를 모르면 모르겠어요. 어디 물어볼 데도 없고 어디 알려주는 곳도 없어요. (김○, 남, 26세)

내가 봤을 때는 한국에서 영어를 너무 많이 쓴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그 영어를 배우고 싶어서 광주 시내에 있는 큰 책방 3군데를 다 돌아다녀도 없더라고. 그래서 일하는 사람에게 한국에서 쓰는 영어가 나온 책 있냐고 물어봤었어. 그런데 없다는 거야. 어디 배울 데도 없고. 한국은 영어 아니면 말이 안 통하니까 너무 답답하지. (조○○, 남, 46세)

조선족 유학생들은 조선족 한국어와 다른 한국어에도 힘들어하지만, 이와 같이 외래어나 외국어 때문에 어려워하는 사례가 많았다. 따라서 유학생들에게 한국어 교육, 특히 ‘발음, 억양, 강세’와 ‘외래어 및 외국어’를 중점적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겠다.

### 3.3.2. 결혼이민자의 경우

결혼이민자가 한국 생활에서 겪는 언어적 어려움은 무엇일까? 이에 대한 응답으로는 ‘있다’가 40명(95.2%), ‘없다’가 0명(0.0%), ‘잘 모르겠다’가 2명(4.8%)이었다. 앞서 살펴본 유학생의 경우도 어려움이 ‘있다’에 해당하는 응답이 다수였지만, 결혼이민자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sup>95)</sup> 이에 대하여 어떤 점이 어려운 것인가에 대한 응답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95) 유학생의 경우는 52.9%인데 반하여, 결혼이민자의 경우 95.2%가 한국 생활에서 의사소통 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유학생이 학교 및 그 주변에서 살아가는 반면에 결혼이민자는 가정, 결혼, 육아, 경제 등 한국인들과 거의 비슷한 삶의 반경 때문에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표 26> 의사소통 시 어려운 점 순위(결혼이민자)

(단위: 명, %)

구 분		1순위	2순위	3순위
한글 및 한자 표 기	광 주	4(9.5)	-	-
	전 남	4(9.5)	-	-
	소 계	8(19.0)	-	-
발음, 억양, 강세	광 주	18(42.9)	4(9.5)	-
	전 남	13(31.0)	3(7.1)	-
	소 계	31(73.8)	7(16.7)	-
외래어 및 외국어 사 용	광 주	-	17(40.5)	2(4.8)
	전 남	3(7.1)	11(26.2)	1(2.4)
	소 계	3(7.1)	28(66.7)	3(7.1)
뜻이 다른 한자어	광 주	-	-	16(38.1)
	전 남	-	1(2.4)	2(4.8)
	소 계	-	1(2.4)	18(42.9)
문법 및 어순	광 주	-	-	3(7.1)
	전 남	-	2(4.8)	10(23.8)
	소 계	-	2(4.8)	13(31.1)
기 타	광 주	-	-	-
	전 남	-	1(2.4)	1(2.4)
	소 계	-	1(2.4)	1(2.4)
무 응 답	광 주	-	1(2.4)	1(2.4)
	전 남	-	2(4.8)	6(14.3)
	소 계	-	3(7.1)	7(16.7)
합 계		42(100.0)	42(100.0)	42(100.0)

<표 26>에서 보듯이 의사소통 시 어려운 점에서 광주 지역 조사대상자의 1순위는 ‘발음, 억양, 강세’가 42.9%, 그 다음으로는 ‘외래어 및 외국어 사용’이 40.5%, ‘뜻이 다른 한자어’가 38.1%로 나타났다. 전남 지역 조사대상자는 그 순서대로 ‘발음, 억양, 강세’ 31.0%, ‘외래어 및 외국어 사용’ 26.2%, ‘문법 및 어순’ 23.8%로 나타났다.

전체 결혼이민자에 대한 의사소통 시 어려운 점은 ‘발음, 억양, 강세’ 73.8%, ‘외래어 및 외국어 사용’ 66.7%, ‘뜻이 다른 한자어’ 42.9%로 나타났다. 이 질문에 대

한 응답 결과를 각 지역의 조사대상자를 합하고, 순위가 아닌 빈도수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27> 의사소통 시 어려운 점 빈도(결혼이민자)<sup>96)</sup>

(단위: 빈도수, %)

구 분	빈 도
한글 및 한자 표기	8(19.0)
발음, 억양, 강세	38(90.5)
외래어 및 외국어 사용	34(81.0)
뜻이 다른 한자어	19(45.2)
문법 및 어순	15(35.7)
기 타	2(4.8)
무 응 답	10(23.8)
합 계	126(300.0)

여기에서 보듯이 ‘발음, 억양, 강세’와 ‘외래어 및 외국어 사용’은 각각 38회와 34회로 높은 응답률을 보인다. 따라서 대부분의 결혼이민자들은 이 두 부분에 대해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는 앞의 <표 19>에서 한국어와 조선족 한국어의 차이점과 비교해 봤을 때 거의 비슷한 응답을 보인다. 이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예<sup>97)</sup>를 제시하면 다음 (4)과 같다.

(4) a. ‘발음, 억양, 강세’의 예

- 조선족 한국어 혹은 TV와는 다른 전라도 방언(억양 및 말의 빠르기)

b. ‘외래어 및 외국어 사용’의 예

- 일상생활 속의 잦은 외국어 사용<sup>98)</sup>

96) <표 26>의 집계는 1인당 세 번의 복수 선택이 가능하다. 따라서 여기에서의 합계는 결혼이민자 42명의 3배인 126회(300%)가 되어야 한다.

97) 이와 같이 두 언어의 차이점과 한국어에서 어렵다고 생각하는 점은 비슷하다. 따라서 조사대상자들이 든 예(例)의 대부분이 비슷하였다. 앞서 제시한 (1)과 (3)은 유학생의 경우이며, (2)와 (4)는 결혼이민자의 경우이다. 서로 비교해 보면 대동소이한 응답을 보이고 있다.

98) 결혼이민자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외래어나 외국어가 너무 많이 사용되고 있음에 힘들어하고 있었다. 가령 광고나 간판의 경우 매우 많은 부분에서 로마자로 표기된 외래어 및 외국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는 물건을 살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샴푸(shampoo) 하나를 사더라도 그 이름부터 ‘쎬 샴이닝’, ‘모이스처 케어’, ‘딤 클렌징’ 등 무분별한 외국어가 사용되고 있다. 결혼이민자들이 여성이기에 주변에서 자주 접하

이와 같이 의사소통 시에 어려운 점을 말하였다. 따라서 유학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다 원활한 한국에서의 생활을 위하여 조선족 한국어와는 다른 한국어의 교육이 필요하냐는 질문을 하였다. 이에 대한 응답 결과는 ‘필요하다’가 40명(95.2%), ‘필요하지 않다’가 0명(0.0%), ‘잘 모르겠다’가 2명(4.8%)으로 나타났다. 거의 대부분의 조사대상자가 한국어 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했는데, 이에 대해 어떤 부분을 공부하고 싶은지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 <표 28>과 [그림 20]과 같다.<sup>99)</sup>

<표 28> 한국어 교육 시에 공부하고 싶은 점(결혼이민자)<sup>100)</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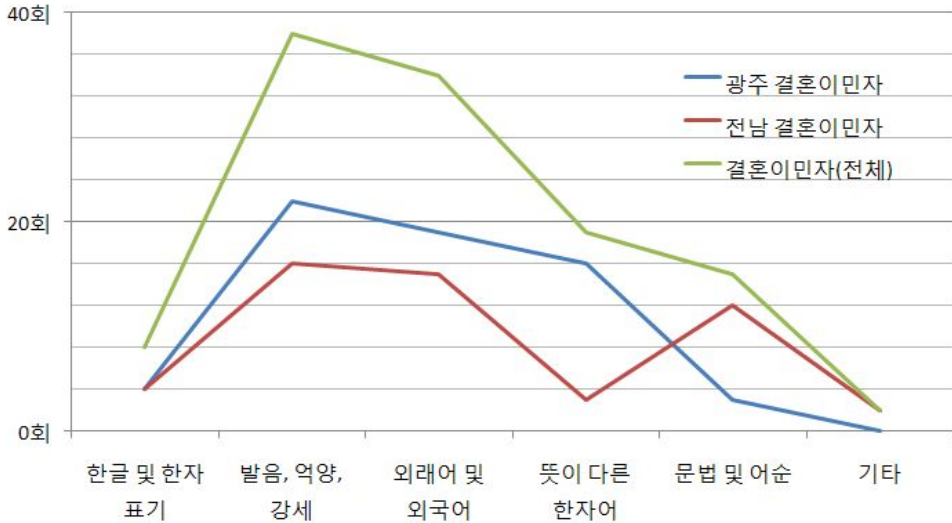
(단위: 빈도수, %)

구 분	결 혼 이 민 자		합 계
	광 주	전 남	
한글 및 한자 표기	4(9.5)	4(9.5)	8(19.0)
발음, 억양, 강세	22(52.4)	16(38.1)	38(90.5)
외래어 및 외국어	19(45.2)	15(35.7)	34(81.0)
뜻이 다른 한자어	16(38.1)	3(7.1)	19(45.2)
문법 및 어순	3(7.1)	12(28.6)	15(35.7)
기 타	-	2(4.8)	2(4.8)
무 응 답	2(4.8)	8(19.0)	10(23.8)
합 계	66(157.1)	60(142.9)	126(300.0)

는 화장품(메니큐어, 클렌징, 마스크라, 파우더 등), 식품이나 음식(키위, 스키다시 등) 등과 같은 물건의 이름부터 이런 셈이다.

99) 한국어 교육 시에 공부하고 싶은 것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순위가 아닌 복수 선택으로 응답을 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표 28>의 집계는 1인당 3번의 선택이 가능하다. 따라서 여기에서의 합계는 결혼이민자 42명의 3배인 126회(300%)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한국어 교육 시 필요한 점이 하나도 없거나 공란으로 된 응답은 모두 ‘무응답’으로 처리하였다. [그림 20]은 ‘무응답’을 제외하고 제시한 것이다.

100) <표 26>의 집계는 1인당 3번의 복수 선택이 가능하다. 따라서 여기에서의 합계는 결혼이민자 42명의 3배인 126회(300%)가 되어야 한다.



[그림 20] 한국어 교육 시 공부하고 싶은 점(결혼이민자)<sup>101)</sup>

위의 표와 그림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결혼이민자 모두 ‘발음, 억양, 강세’, ‘외래어 및 외국어 사용’에 관한 부분을 공부하고 싶어 하는 응답이 다른 것에 비하여 많았다. 이는 앞서 제시한 유학생의 경우와 같은 태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한국어와 조선족 한국어와의 차이점, 한국에서 의사소통 시 어려운 점 등에서 1·2위로 드러난 점과 같다. 따라서 결혼이민자들 역시 이들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나 어렵다고 느끼는 부분에서 그들의 부족함을 채우고 싶은 의사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조선족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에서는 ‘발음, 억양, 강세’ 및 ‘외래어 및 외국어’에 대한 것을 우선적으로 가르쳐야 할 것이다. ‘발음, 억양, 강세’에 관한 것은 앞의 유학생의 경우에서 제시한 바와 같다. 어떤 지역의 것을 표준으로 정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등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외래어 및 외국어’에 관한 것은 먼저 결혼이민자의 생활에서 어떤 말들이 사용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전남 고흥의 한 요양원에서 급식 업무를 하는 한 결혼이민자의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저는 1년 전에 운전면허를 한 번에 취득하고, 지금 남편이 사준 중고차를 타고 다니면서 일을 해요. 같이 일하는 아줌마들도 부러워해요. 그런데 요리사 자격증은

101) [그림 20]은 <표 28>에서 ‘무응답’을 제외하고 작성하였다.

2번 떨어졌어요. 운전면허 시험은 그래도 표지판처럼 그림이 있어서 합격했는데, 요리사 (필기)시험은 무슨 말인지 통 알 수가 없어서 문제를 못 풀었어요. 외국말이 많아서 그래요. 이번에는 요리 학원에 다니면서 외국말도 배우고 할 거예요. 외국말 배우려고 학원을 다니는 것 같아서 좀 그러지만, 이번엔 꼭 (요리사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싶어요. (○○○, 여, 42세)

이처럼 결혼이민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작은 것부터 시작된다. 박영순(2001:89~92)에서는 한국의 언어의 변화에 대해 여러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sup>102)</sup> 그 가운데 ‘신어(新語)’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9> 한국어의 신어(新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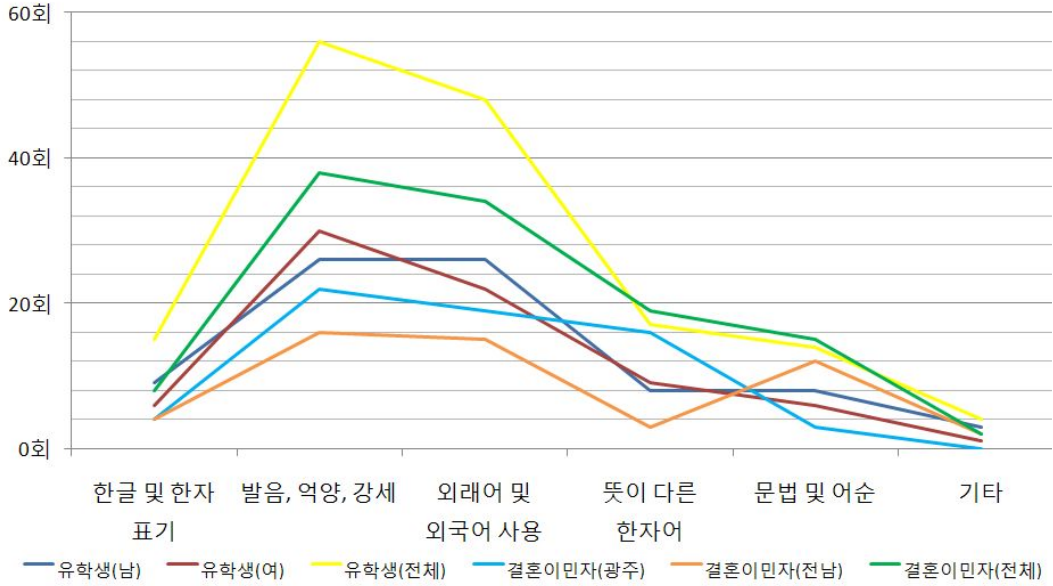
구 분	신어(新語)의 예
주거와 관련된 말	빌라, 벨리, 오피스텔, 타운, 콘도, 실버타운, 원룸, 아파트 등
경제와 관련된 말	온라인, 인터넷, 재테크, 홈쇼핑, 펀드, 원원 전략, 빅딜 등
직업과 관련된 말	펀드 매니저, 재테크 전문가, 개그맨, 카운슬러, 도우미, 등

위의 <표 29>를 보듯이 직업과 관련된 신어 중에서 ‘도우미’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외래어 및 외국어, 또는 한국어와 함께 쓰이고 있다. 이외에도 고유어로만 만들어진 신어(新語)도 있겠지만, 과연 이러한 단어들이 조선족 유학생과 결혼이민자에게 그들이 알고 있는 한국어로 받아들여질 것인지는 의심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외래어나 외국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앞서 살펴본 유학생의 경우와 결혼이민자가 한국어에서 공부하고 싶은 점을 살펴보겠다. 이를 그림으로 제시하면 다음 [그림 21]과 같다.

102) 박영순(2001:90~92)에서는 언어 변화의 유형을 다음의 6가지로 나누고 있다. 신어, 바뀐 말, 거의 사라진 말, 사용의 변화 및 오용 사례, 언론에서의 비격식 표현 및 속어, 은유 표현 등이 그것이다. 외래어 및 외국어에 대해 그 맥락이 같은 예는 ‘신어’에 관한 것이었다. 한국 내 언어 변화의 유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박영순(2001:90~92)를 참조할 것.





[그림 21] 한국어 교육 시 공부하고 싶은 점(전체 조사대상자)<sup>103)</sup>

여기에서 보듯이 전체 조사대상자가 한국어 교육 시 공부하고 싶은 점은 ‘발음, 억양, 강세’ 및 ‘외래어 및 외국어’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어와 조선족 한국어의 차이점과 한국에서 의사소통 시 어려운 점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결국 차이점으로 느낀 부분이 어려운 점이 되고, 그것이 공부하고 싶은 점으로 나타난 것이다. 유학생과 결혼이민자 전체에 걸쳐 ‘발음, 억양, 강세’와 ‘외래어 및 외국어’에서 그러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103) [그림 21]에서는 [그림 19]와 [그림 20]에서와 같이 ‘무응답’을 제외하고 수치를 합산하여 작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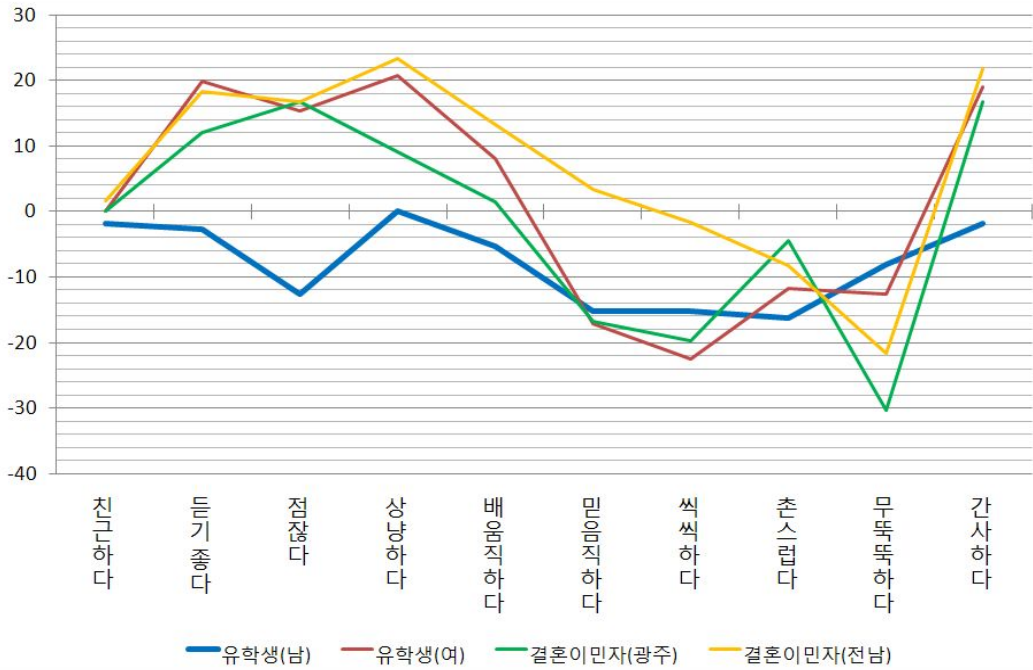
## 제4장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한국에 이주해 살고 있는 조선족들의 언어 태도를 살펴보려는 목적으로 이들이 느끼는 한국어와 조선족 한국어에 대한 태도를 분석한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는 조선족들이 한국 내에서 한국어와 조선족 한국어에 대해 느끼고 생각하는 바를 파악하여, 궁극적으로는 한국어 교육 및 정책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알아보고자 한 데서 비롯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광주광역시 소재 대학 남녀 유학생 70명과 광주광역시 및 전남에 살고 있는 결혼이민자 4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 조사 방법을 통해 조선족들의 언어 태도를 확인하였는바, 그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어와 조선족 한국어가 얼마나 비슷한지, 다른 점은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조사대상자들은 대부분 두 언어가 비슷하지만, ‘발음, 억양, 강세’, ‘외래어 및 외국어 사용’ 등에서 비교적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발음, 억양, 강세’는 방언의 음성적 변이형으로 볼 수 있겠으나, 한국어에 나타나는 ‘외래어 및 외국어 사용’은 이들이 사용하는 조선족 한국어와는 큰 차이점이라는 것을 유학생과 결혼이민자 모두 느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두 언어에 대한 개인적 느낌이 어떠한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이를 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22] 한국어와 조선족 한국어의 느낌<sup>104)</sup>

[그림 2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남자 유학생은 ‘민음직하다’, ‘씹씹하다’, ‘촌스럽다’, ‘무뚝뚝하다’ 등에 해당하는 느낌에서만 다른 조사대상자와 서로 비슷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외의 항목에서는 모두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조사대상자의 성별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남자 유학생들의 이러한 태도는 Trudgill(1983a, b), Fasold(1990)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사투리, 즉 자신들의 모어인 조선족 한국어에 ‘숨은 위세(covert prestige)’를 부여하고 있다.

셋째,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겪고 있는 언어적 어려움이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두 언어의 차이점과 마찬가지로 ‘발음, 억양, 강세’와 ‘외래어 및 외국어 사용’이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와 같은 양상은 한국어와 조선족 한국어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점과 같은 점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유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용어나 일본어의 잔재 등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반면, 결혼이민자들은 자신이 노출된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애로를 가지고 있었다.

104) [그림 22]에서는 앞서 살펴본 의미 미분 척도로 환산된 점수를 기준으로 자료를 정리하였다. 세로축의 ‘양수(陽數)’ 부분은 한국어가 ‘그렇다’에, ‘음수(陰數)’ 부분은 조선족 한국어가 ‘그렇다’에 더 높은 점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넷째,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 및 항목에 대해서는 유학생 및 결혼이민자 대부분이 한국어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 선호도는 각각 68.6%와 95.2%로 결혼이민자가 유학생에 비해 필요성을 더욱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유학생이 학교 및 그 주변에서 살아가는 반면에 결혼이민자는 가정, 결혼, 육아, 경제 등 한국인들과 거의 비슷한 삶의 반경 때문에 그 필요성을 더욱 느끼고 있다. 거의 대부분의 조사대상자들이 원하는 교육 항목에서는 ‘발음, 억양, 강세’, ‘외래어 및 외국어’ 등이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따라서 한국어와 조선족 한국어 간의 차이점과 조사대상자들의 한국 생활에서의 언어적 어려운 점이 결국 한국 생활을 하는 조선족들이 공부하기를 원하는 점과 같음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해외 동포 중 하나인 조선족에 대한 한국어 교육 및 언어 정책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 이러한 정책의 방향은 조선족들이 두 언어 사이에서 차이를 느끼고 어려워하며 학습하기를 원하는 부분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발음, 억양, 강세’에서 해외 동포들과 함께 시행할 수 있는 표준 발음법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내외 학자들의 연구와 노력이 이루어져 한국 및 해외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의 통일안이 요구된다. 특히 이와 같은 음성적 부분은 한국 내에서도 방언에 따라 다른 변이형을 가지고 있지만, 해외 동포들의 경우 같은 말을 사용하는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고려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외래어 및 외국어’에서는 한국의 무분별한 외국어 사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일본어의 잔재, 영어 위주의 교육과 더불어 이를 선호하는 체계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학교와 같은 교육 기관에서 다루는 용어 및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무분별한 외국어에 대한 정책도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sup>105)</sup> 이를 위하여 언론, 방송, 경제 등 많은 부분에서 하나씩 바꾸어 나갈 필요성이 있다. 물론 이와 같은 일들이 국립국어원이나 우리말을 다루는 프로그램 등에서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보다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세계 어디에서나 한국어에 대해 같은 언어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 중국 조선족, 북한 등에서는 같은 한국어가 모어로 사용되고 있지만 서로의 언어

105) 사실 필자가 사는 농촌에서 필자는 동네 어른들과 대화를 할 때 외래어나 외국어의 사용을 자제한다. 그 이유는 의사소통에 장애가 되기 때문이다. 물론 농촌과 도시라는 지역, 대화를 하는 상대, 방언 등에 따라 다를 것이다. 하지만 예컨대 “말기는 운송하면서 흔들리면 물러지니까 타이트하게 답아야 해.”라고 말을 했다고 하자. 물론 청자가 무슨 말인지는 알 것이나, ‘타이트(tight)’의 정확한 뜻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를 통하여서도 필자와 동네 어른들은 ‘구별짓기’가 되는 것이다. 또한 이와 함께 인터넷이나 대중 매체를 통한 신조어, 가령 ‘안습(안구에 습기가 찰 정도로 안타까움)’과 같은 말들도 어느 정도 순화가 되거나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정책은 다르다.<sup>106)</sup> 동일한 언어 정책은 해외 동포뿐만 아니라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들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한국어를 어디에서 학습하더라도 같아야 한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도 결국 한국 사회에서 다시 또 다른 한국어에 노출되는 격이 되고 만다.

이러한 방향과 관련, 박영순(2005:25-28)에서는 한국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되, 추상적인 애국·애족 정신을 고취시키기보다 이중·다중 언어 능력이 동포 자신에게 큰 이익이 됨을 인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학문적, 교육적, 행정적,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노력이 좀 더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중국에서든 한국에서든 한국어 교사의 자질도 무척 중요하다. 하지만 본고의 조사 결과와 같이 조선족들이 자신들의 한국어와 같지만 다른 한국어로 인해 어려워하고 차별을 받는다면 이는 지금부터 통일된 또한 합리적인 언어 정책이 요구된다.

본고는 한국 내 조선족의 언어 태도에 대한 첫 번째 시도라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 취약점이 있으므로 추후의 보완이 필요하다.

첫째, 연구 대상자 및 조사 지점의 확대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유학생과 결혼이민자에 국한된 조사를 하였지만, 앞으로는 보다 다양한 체류 자격을, 광주광역시와 전남을 벗어나 전국에 살고 있는 조선족으로 더 확대하여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그리하여 보다 많은 조선족 조사대상자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조사대상자의 수가 더 많아야 한다. 유학생보다는 결혼이민자의 조사대상자 확보가 필요하다. 필자가 연구의 목적과 의의를 밝히고 조사를 의뢰하여도 다문화가족센터 등의 기관에서는 단호하게 거절한 곳이 대부분이었다. 더 많은 조사대상자의 확보를 위해서는 각 기관의 협력 역시 필요하다.

셋째, 설문지의 각 항목들이 너무 포괄적이었다. 따라서 본고의 설문보다 세밀하게 조사되어야 좀 더 정확하고 자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가 계속되고 축적되는 것은 효율적인 교육을 위한 길임과 동시에 보다 구체적인 언어 정책 수립의 바탕이 될 듯하다.

---

106) 한국, 중국 조선족, 북한에서 각각 모어인 한국어에 대한 정책이 다르다는 것은 최윤갑(1994)를 보면 알 수 있다. 여기에서는 서사법(정서법(正書法)에 해당), 표준발음법, 어휘, 어문규범 등으로 나누어 세 언어를 비교하고 있다. 또한 이주행(2003)에서는 한국과 중국 조선족의 문자, 맞춤법, 띄어쓰기, 표준 발음법, 어휘, 문법 등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시하고 있다.

## 【 참고 문헌 】

- 강희숙(1999), 「언어 변화와 언어 유지의 원리」, 『국어문학』 제34권 1호, 국어문학회. pp. 5~22.
- \_\_\_\_\_ (2003), 「중국 조선족 학생들의 모국어 사용에 대한 공시적 연구」, 『사회언어학』 제11권 2호, 한국사회언어학회. pp. 1~24.
- 김동소, 최희수, 이은규(1994), 「중국 조선족 언어 연구」, 『한국전통문화연구』 제9권, 효성여자대학교 한국전통문화연구소. 155~483.
- 김명희(2003), 「한국 내 조선족의 정체성과 한국관」, 『계간사상』 제15권 3호, 사회과학원. pp. 183~201.
- 김병호(1993), 『중국의 민족문제와 조선족』, 서울: 학고방.
- 김연옥(2009), 「조선족중소학교 교원들의 언어태도에 대한 약간의 고찰」, 『중국조선어문』 2009년 2호, 길림성민족사무위원회. pp. 55~60.
- 김영수(2006), 「중국의 소수민족정책과 중국 조선족의 실태 - 연변조선족을 중심으로」, 『한국어의 미래를 위한 제1차 토론회: 국외 동포 및 이주민을 위한 한국어 교육을 중심으로』 2006년,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pp. 16~25.
- 김욱(2008), 「중국 조선족의 한국·한국인에 대한 인식 변화: 연길 조선족을 중심으로」, 광운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 럼광호(1989), 「연변의 이중언어현상특점」, 『중국조선어문』 1989년 4호, 길림성민족사무위원회. pp. 6~8.
- 마금선(2009), 「연변에서의 이중언어 사용 실태와 한국어 교육」, 『세계한국어문학』 창간호, 세계한국어문학회. pp. 57~90.
- 묘춘매(1997), 「중국에서의 조선어 교육」, 『이중언어학』 제14호, 이중언어학회. pp. 49~72.

- 민현식(2002), 「국어 사용 실태 조사 방법론 연구」, 『사회언어학』 제10권 1호, 한국사회언어학회. pp. 73~112.
- 박경래(2002a), 「중국 연변 조선족들의 모국어 사용 실태」, 『사회언어학』 제10권 1호, 한국사회언어학회. pp. 113~146.
- \_\_\_\_\_ (2002b), 「중국 연변 조선족들의 언어 태도」, 『사회언어학』 제10권 2호, 한국사회언어학회. pp. 59~86.
- 박금해(2004), 「중국에서의 조선족의 교육과 문화」, 『인문과학논총』 제14집, 순천향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pp. 97~112.
- 박명수 역(2007), 『외국어연구를 위한 설문지 작성 방법론』, 서울: 한국문화사.
- 박영순(2001), 『한국어의 사회언어학』, 서울: 한국문화사.
- \_\_\_\_\_ (2005), 「이중언어교육의 최근 동향과 해외 동포의 한국어 교육 문제」, 『이중언어학』 제28호, 이중언어학회. pp. 11~31.
- 박윤조(2000), 「재중 조선족의 이중언어현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종서(1983), 「Bilingualism의 사회적 측면」, 『서울여자대학교 논문집』 제12집, 서울여자대학교. pp. 99~113.
- 박태형(1995), 「중국 조선족 학교에서의 이중언어 교육」, 『이중언어학』 제12호, 이중언어학회. pp. 401~405.
- 신승용(2006), 「東北三省 朝鮮族 現況과 言語變化 樣相 및 朝鮮語文 教育」, 『동아인문학』 제10집, 동아인문학회. pp. 235~263.
- 양명희(2007), 「한국인의 언어 의식의 변화」, 『사회언어학』 제15권 1호, 한국사회언어학회. pp. 107~236.
- 양철준(2007), 「제2언어로서의 불어 학습과 프랑수어계 학교 진학의 동기: 폰디체리 프랑코-폰디체리인들의 언어 태도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11권 4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pp. 207~236.
- 여수경(2005), 「한국체류 조선족의 갈등과 적응」, 『인문연구』 제48권,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pp. 243~277.
- 연호탁(1999), 「중국 운남성 노남현 소재 거주 철이민의 이중언어 사용에 대하여」, 『사회언어학』 제7권 2호, 한국사회언어학회. pp. 287~311.

- 이귀옥, 전효정, 박혜원, 강완숙, 장미자(2004), 「중국 조선족 아동의 한국어-중국어 이중언어발달에 미치는 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제17권 1호, 한국심리학회. pp. 181~213.
- 이득춘(1994), 「중국의 한중 이중언어 사용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 『이중언어학』 제11권 1호, 이중언어학회. pp. 59~70.
- 이익섭(1994), 『사회언어학』, 서울: 민음사.
- \_\_\_\_\_ (1996), 「중국 연변 조선족의 모국어 선택」, 『이기문교수 정년퇴임기념논총』, 서울: 신구문화사. pp. 599~621.
- 이장송·신경식(2004), 「중국 조선족의 언어 전환에 관한 연구: 흑룡강성 하얼빈시 성고자진의 조선족 공동체를 중심으로」, 『사회언어학』 제12권 1호, 한국사회언어학회. pp. 207~230.
- 이주행(2003), 「남한과 중국 조선족 사회의 언어 비교 연구」, 『언어과학연구』 제26권, 언어과학회. pp. 277~306.
- \_\_\_\_\_ (2005), 「사회언어학적 관점에서 본 한국인과 중국 조선족 언어 사용 양상」, 『국제학술대회』 2005년 1호,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pp. 85~105.
- 이현정(2001), 「조선족의 종족 정체성 형성 과정에 관한 연구」, 『비교문화연구』 제7집 2호,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pp. 63~105.
- 임채완(2009), 「중국 조선족 대학생의 민족정체성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임형재(2006), 「한국 조선족 대화에서 나타난 표현(expression)형 코드전환」, 『한민족 문화연구』 제19집, 한민족문화학회. pp. 123~143.
- 장순진(1990), 「이중언어사용에 대한 사회심리 분화와 그 발전추세」, 『이중언어학』 제7권 1호, 이중언어학회. pp. 242~255.
- 정재남(2008), 『중국의 소수민족』, 서울: 살림출판사.
- 조준학·박남식·장석진·이정민(1981), 「한국인의 언어의식 - 언어접촉과 관련된 사회언어학적 연구」, 『어학연구』 제17권 2호,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pp. 167~197.
- 최윤갑 외 13인(1992), 『중국에서의 조선어의 발전과 연구』, 연변: 연변대학출판사.
- 최윤갑(1994), 『중국, 조선, 한국 조선어 차이 연구』, 서울: 한국문화사.



- \_\_\_\_\_ (1995), 「중국에서의 조선어 교육과 사용으로부터 본 조선어 통일의 필요성」, 『중국조선어연구』 1995년 2호, 길림성민족사무위원회. pp. 4~5.
- \_\_\_\_\_ (1998), 『조선어 한국어 연구』, 서울: 홍문각.
- 태평무(1999), 『사회언어학연구』, 서울: 박이정.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06), 『2005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 연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_\_\_\_\_ (2007), 『2006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 연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_\_\_\_\_ (2008), 『2007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 연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_\_\_\_\_ (2009), 『2008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 연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Crystal, David (1992). *An Encyclopedia Dictionary of Language and Languages*. Cambridge, MA: Blackwell.
- Fasold, R. W. (1984). *The Sociolinguistics of Society*. Oxford: Blackwell.
- Fasold, R. W. (1990). *The Sociolinguistics of Language*. Oxford: Blackwell.
- Fischer, J. L. (1958). "Social Influences in the Choice of a Linguistic Variant." *Word* 14, Hymes(1964).
- Lee, Chae-Jin (1986). *China's Korean Minority: The Politics of Ethnic Education*. Boulder: Westview Press.
- Milroy, L. and Gordon, M. (2003). *Sociolinguistics: Method and Interpretation*. Oxford: blackwell.
- Neuman, W. L. (1997). *Social Research Methods: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pproaches(3rd edn.)*. Boston: Allyn & Bacon.
- Sankoff, G. (1974). "A Quantitative Paradigm for the Study of Communicative Competence." Bauman & Sherzer (1974).
- Trudgill, P. (1974). *The Social Differentiation of English in Norwich*.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rudgill, P. (1983a). *On Dialect : Social and Geographical Perspectives*.  
Oxford: Blackwell.
- Trudgill, P. (1983b). *Sociolinguistics : An Introduction to Language and Society*. rev. ed. London: Penguin Books.
- Wolfman, W. (1969). *A Sociolinguistic Description on Detroit Negro Speech*. Washington, D.C.: Center for Applied Linguistics.
- Zhang, Xian Mei(2010), 「제한 조선족 유학생의 한국관」,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 사전류

- 국립국어연구원(1999), 『표준국어대사전』, 서울: (주)두산동아.
- 국어국문학회(2000), 『밀레니엄 새로운 국어대사전』, 서울: 민중서관.
- 민중서림편집국(2001), 『옛센스 국어사전』, 서울: 민중서림.
- 우리말사전 편찬회(1998), 『우리말대사전』, 서울: 삼성문화사.
- 한글학회(1991), 『우리말 큰사전』, 서울: 어문각.

## 【 부 록 】

### 《중국 동포의 언어 태도 연구를 위한 질문지》

안녕하십니까?

본 질문지는 한국에 체류 중인 중국 동포들이 가지고 있는 한국어와 조선어에 대한 생각 및 태도를 파악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질문의 응답은 '정답'이나 '오답'이 없으니, 여러분이 평소에 느끼고 생각한 대로 적어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답변입니다. 솔직한 답변에 본 연구 조사의 성패가 달려있으니 진실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응답해주신 설문지는 여러분 각 개인과는 상관없이 한꺼번에 분석되어 학술자료로 쓰이게 되고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조사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0년 3월

연구자: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과정 박주형

#### ♣ 용어 정리 ♣

- 한국어: 한국에서 한국인이 사용하는 언어(韩语)
- 조선어: 중국에서 동포(조선족)가 사용하는 언어(朝鲜语)
- 중국어: 중국에서 한족(汉族)을 중심으로 사용하는 언어(汉语)

1. 본인이 태어나서 처음 배운 언어는 어떤 것입니까?

- ① 조선어      ② 중국어      ③ 기타(      )

2. 부모님은 모두 조선족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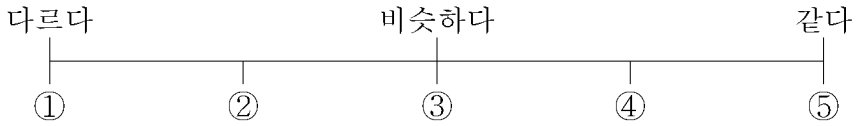
- ① 아버지만 조선족      ② 어머니만 조선족      ③ 둘 다 조선족

3. 부모님은 어느 언어를 사용합니까?

<아버지> ① 조선어      ② 중국어      ③ 둘 다      ④ 기타(      )

<어머니> ① 조선어      ② 중국어      ③ 둘 다      ④ 기타(      )

4. 한국어와 조선어가 같다고 생각합니까? (해당 번호에 ○표)



5. 한국어와 조선어가 조금이라도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차이가 큰 순서대로 3개만 그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 ① 한글 및 한자 표기
- ② 발음, 억양, 강세
- ③ 외래어 및 외국어 사용
- ④ 뜻이 다른 한자어
- ⑤ 문법 및 어순
- ⑥ 기타(                    )

다른 순서	번호
1순위	
2순위	
3순위	

6. 위의 5번에서 '1순위'에 해당하는 것의 예를 하나만 적어 주십시오.

\_\_\_\_\_

7. 한국어와 조선어에 대한 본인의 느낌은 어떠합니까? (해당 사항에 ○표)

구분 느낌	한국어			조선어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친근하다						
듣기 좋다						
점잖다						
상냥하다						
배움직하다						
춘스럽다						
무뚝뚝하다						
간사하다						
믿음직하다						
씩씩하다						

8. 본인이 조선족인 것을 한국인들이 알게 되었을 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까? 2개만 골라 주십시오.

- ① 한글 및 한자 표기                      ② 발음, 억양, 강세
- ③ 방언(사투리)                            ④ 뜻이 다른 한자어
- ⑤ 문법 및 어순                              ⑥ 기타(                      )

9. 한국에서 살면서 한국인과 의사소통을 할 때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③ 모르겠다

10. 위의 9번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가장 어려운 순서대로 3개만 그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 ① 한글 및 한자 표기
- ② 발음, 억양, 강세
- ③ 외래어 및 외국어 사용
- ④ 뜻이 다른 한자어
- ⑤ 문법 및 어순
- ⑥ 기타(                      )

어려운 순서	번호
1순위	
2순위	
3순위	

11. 위의 10번에서 '1순위'에 해당하는 것의 예를 하나만 적어 주십시오.

\_\_\_\_\_.

12. 조선어는 어느 말씨와 비슷합니까?

- ① 한국말      ② 북한말      ③ 기타(                      )

13.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_\_.

14. 보다 원활한 한국생활을 위하여 한국어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 ① 필요하다    ② 필요하지 않다    ③ 모르겠다    ④ 기타(                      )

15. 한국어 교육이 필요하다면 어떤 것을 공부하고 싶습니까? 3개만 골라 주십시오.

- ① 한글 및 한자 표기                      ② 발음, 억양, 강세
- ③ 외래어 및 외국어                      ④ 뜻이 다른 한자어
- ⑤ 문법 및 어순                              ⑥ 기타(                      )

16. 본인이 중국에 돌아갔을 때, 조선어와는 다른 한국어를 주변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의향이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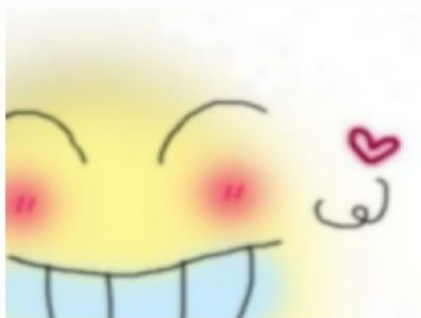
- ① 있다    ② 없다    ③ 모르겠다

17. 만약 한국어를 가르쳐줄 의향이 있다면, 어떤 것을 가르쳐 주고 싶습니까? 3개만 선택하십시오.

- ① 한글 및 한자 표기                      ② 발음, 억양, 강세
- ③ 외래어 및 외국어 사용                      ④ 뜻이 다른 한자어
- ⑤ 문법 및 어순                              ⑥ 기타(                      )

※ 해당사항에 ○표를 해주십시오.

체 류 기 간	① 0~1년    ② 1~2년    ③ 2~3년    ④ 3년 이상
전 공 학 과	_____학과
성별 및 나이	① 남성    ② 여성    * _____세(한국 나이)
체 류 자 격	결혼이민자( )    유학생( )



여러분의 한국 생활을 응원합니다.  
 성실한 답변으로 본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과	국어국문학과	학번	20087477	과정	석사
성명	한글: 박주형	한문: 朴主形	영문: Park Joohyung		
주소	전남 담양군 봉산면 양지리 134-12번지				
연락처	E-mail: givejooda@hanmail.net				
논문	한글: 한국 내 중국 조선족의 언어 태도 연구				
제목	영문: A Study on Language Attitude for Korean-Chinese in Korea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 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과 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 이용의 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 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동의여부 : 동의( ○ )    반대(    )

2010년 8월

저작자 :    박 주 형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